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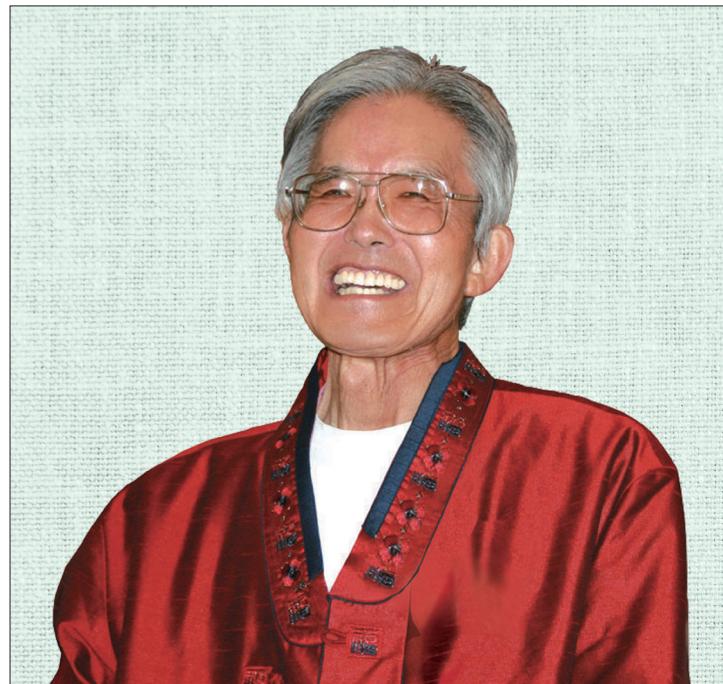
ISSN 1226-9638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2

제41권 제1호 통권 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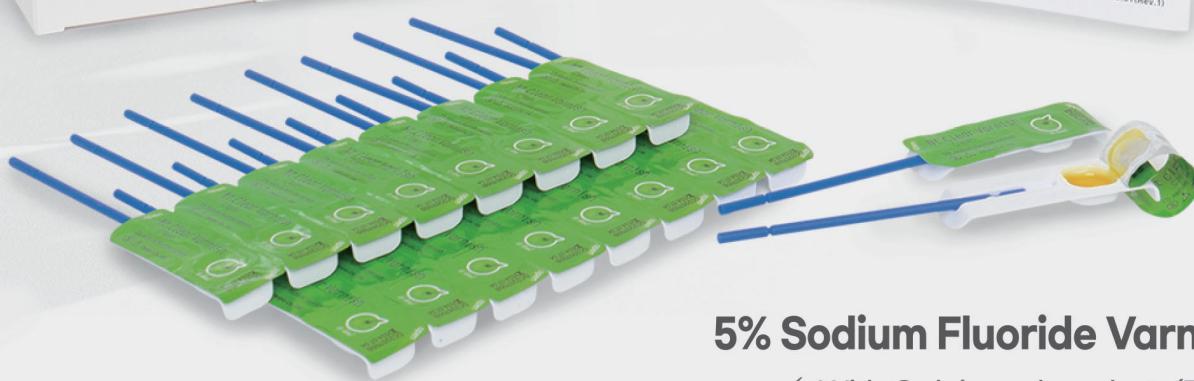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 Nt Clear Varnish Clean

천연송진을 주재료로 한 생체친화원료  
 의료기기 2등급 인증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입증)



## 5% Sodium Fluoride Varnish

- ✓ With Calcium phosphate(TCP)
- ✓ With Tocopherol(Vitamin E)
- ✓ With Xylitol

**Apple Flavor**

► Contents : 0.4ml x 32입 | 0.4ml x 200입

ISSN 1226-9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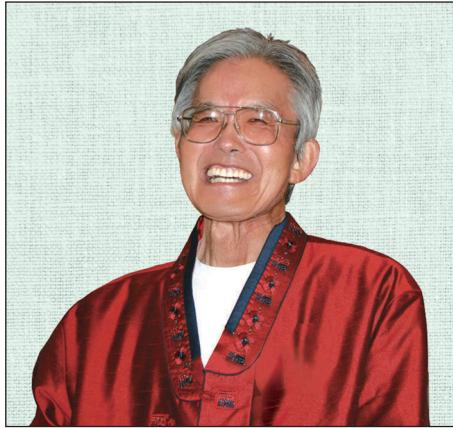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2

제41권 제1호 통권 46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최정봉(崔正奉, 개명 최진환 崔鎮煥, 1936-2012)

1960년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발행의 중심에는 치과의사 최정봉의 헌신이 있었다. 치과대학을 막 졸업한 최정봉은 그 당시 치과 역사에 정평이 난 이한수를 찾아가 연구회에 관한 자신의 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958년 10월 1일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가 발족되었다.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의 제1호 학술지는 1960년 12월 1일 발행되었고, 연구회는 1960년 10월 7일 확대 설립되어 회장 이한수, 총무 최정봉이 선출되었다. 1962년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명칭도 대한치과의사학회로 변경되었다.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최정봉이 남긴 편집후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전해진다.

최진환은 치의신보의 전신인 치과월보 초대 편집인이자 공보이사였다. 그의 치과월보 창간사에 치의신보 연혁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가 남기고 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는 치과월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지를 통해 기록물로 남겨졌다. ‘한국치과계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19세기말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1981년 대한치과의사협회(1980)가 한국 치과계에서 최초로 발간되었다.

그는 1966년 모리스 스미스(Maurice Smith)의 저서 A Short History of Dentistry(1958)를 번역하여 <치과의학사>라는 책을 출판하여 대학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번역본 책의 부록에 28페이지 분량의 ‘한국 치의학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진환은 대한민국 초기 치의학사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계획과 꿈이 무산되자 1971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미국에서 다시 치과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여 치과 개원 생활을 하였다. 최진환 선생은 재미교포 사회에서 제1호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민족교육, 한국 민주화 운동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치과의사로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학은 이과인 치의학과 문과인 역사학을 융합한 중요한 학문입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 창립된 이후 62년을 면면히 이어오는 유서 깊은 학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열리다가 3년 만인 2022년 12월 18일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치의학 교육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2년 4월 15일 연건동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치의학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4월 15일 소공동 저경궁 터에 설립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이어졌으며, 해방 후인 1945년 11월 1일 경성치과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경성치과대학은 1946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귀속되었으며, 1959년 1월 치의예과를 신설하여 6년제 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1967년 3월 2일 경희대학교 치의예과가, 1968년 3월 2일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실되어 치의학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학술대회에서는 3개의 의사학 연제, 2개의 임상 연제, 1개의 윤리학 연제로 발표되었고, 2022년 학술지에서는 지르코니아의 역사, 프랑스 치과 명화 및 윌리엄 샤이플리의 의료 사역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학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해준**



# 목 차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발전 역사와 연구 동향	.....	1
안진수, 김지형(Ahn, Jin-Soo, Kim, Ji-hyung)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프랑스	.....	9
권 훈(Kweon, Hoon)		
월리엄 샤이플리 다이어리	.....	27
김준혁, 김수연, 신유석, 이주연 (Kim, Junhewk, Kim, Sooyeon, Shin, Yooseok, Lee, Jue Yeon)		



#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발전 역사와 연구 동향

안 진 수

Ahn, Jin-Soo

김 지 혼

Kim, Ji-hyung

1. 서론
2. 지르코니아의 등장; 1970년대~1980년대
3. 치과분야에의 도입; 1990년대~2000년대
4. 초기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형태
5. 지르코니아의 최근 연구 동향
6. 결언

#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발전 역사와 연구 동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교수

안 진 수

엘치과병원

김 지 형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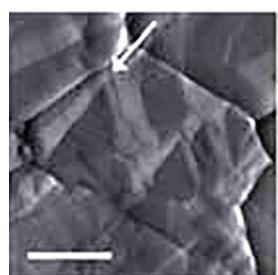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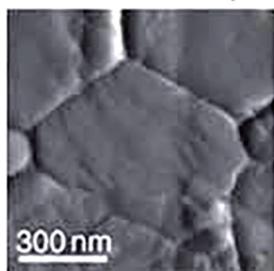
지르코니아는 원소기호 40번 금속인 지르코늄이 산소와 결합이 된 형태로 재료학적으로 세라믹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세라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세라믹의 정의는 금속원소가 산소, 탄소, 질소 등과 결합한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등이다.

세라믹의 일반적 성질은 경도가 높다는 것이다. 경도란 강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경도가 높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이며 스크래치가 잘 안 생기고 대체로 마모저항성이 높다. 그러나 취성(brittleness)이라고 하여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다. 또한 압축력에는 저항을 하나 인장력에는 약한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치과임상에서 절삭용 버(bur)로 사용이 되는 카바이드 버는 텅스텐이 탄소와 결합한 형태의 세라믹인 텅스텐카바이드로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높은 마모저항성과 경도로 인해 절삭용 공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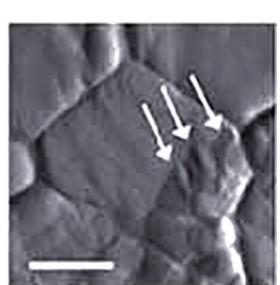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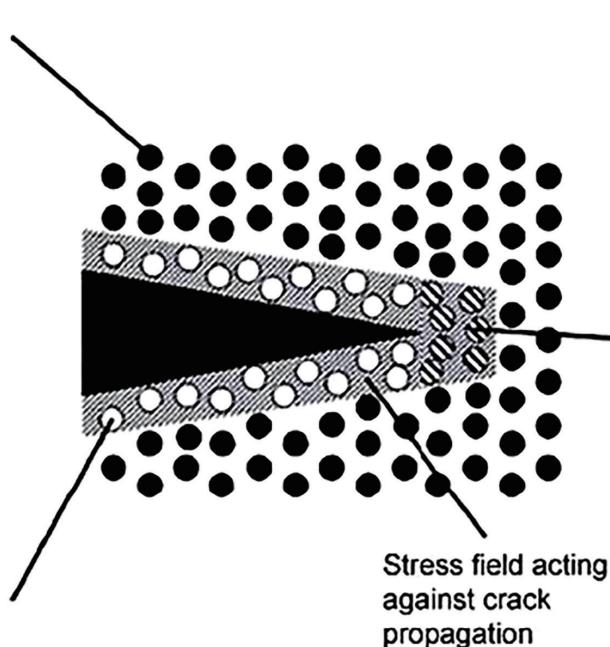
그렇다면 지르코니아가 잘 깨지는 세라믹의 일종인데 왜 잘 안 깨지고 치과임상에 사용이 되게 되었는가? 이는 지르코니아만이 가지는 특이한 성질에 의한다. 지르코니아는 온도에 따라 상온에서는 단사정(monoclinic), 섭씨로 약 1200도가 넘으면 정방정(tetragonal), 약 2400도가 넘으면 입방정(cubic) 상(phase)을 가지며 약 2700도가 넘으면 녹는 물질이다. 여기에 이트리아나 마그네시아와 같은 안정화제를 넣으면 가열했다가 실온으로 식을 때 고온에서의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치과용 지르코니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로 정방정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입방정상을 유지하게 되면 인공보석으로 널리 쓰이는 큐빅이 된다.

지르코니아가 다른 세라믹보다 월등히 강한 이유는 이러한 상의 변화에 기인한다. 세라믹이 잘 깨지는 이유는 일단 균열이 생기면 균열히 급격히 전파되어 파괴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이 균열만 막아도 세라믹의 강도는 높아지게 된다. 강화유리나 방탄유리가 강한 이유도 열처리를 통해 표면에 압축력을 형성하여 균열이 퍼지는 걸 막기 때문이다. 지르코니아의 경우 정방정상을 유지하다가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단사정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 이러한 부피 팽창이 균열의 전파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자체가 강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림 1).

Metastable initial grains



Grains after transformation

그림 1. 지르코니아의 변태강화로 인해 균열전파가 억제되는 모습<sup>(2)</sup>

## 2. 지르코니아의 등장; 1970년대~1980년대

변태강화효과를 활용한 지르코니아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즈음인 1970년대 처음 등장하였다. 지르코니아의 기계적 강도는 공학 및 산업 분야 등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고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인공 고관절술식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코발트-크롬 합금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대체하여 특히 고관절 대퇴골두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고열이 아닌 체온에서도 정방정이 단사정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저온열화 현상으로 인해 골두가 깨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되면서 저온열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치의학에 지르코니아가 도입될 때에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하게 되기도 하였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한 브로네막 박사가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치과용 지르코니아 역시 정형외과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다.

## 3. 치과분야에의 도입; 1990년대~2000년대

치과분야에서는 의과분야에서 10여년이 지나고 지르코니아가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0년대에 캐드캠 밀링 시스템의 도움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처음 나온 지르코니아는 완전히 소결된 단단한 지르코니아를 깎는 시스템이다 보니 가공툴의 마모, 오랜 가공시간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지르코니아를 반 소결한 상태로 밀링하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지르코니아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야흐로 지르코니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던 것에는 캐드캠이 큰 역할을 하였다. 지르코니아는 반 소결 상태에서 완전 소결을 하면 거의 20% 가량 수축을 하게 되므로 반 소결 상태에서 형태를 형성할 수 없어야 하지만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캐드캠의 도움으로 수축률을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크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반 소결된 지르코니아는 마치 석고처럼 절삭이 쉽기 때문에 가공툴도 오래 가고 특히 가공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치과재료는 재료의 물성보다는 임상에서의 적용성에 의해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치과용 접착제의 경우 고전적인 3-step 본딩시스템이 접착강도시험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지만 더 사용이 쉬운 2-step 내지는 1-step 방식의 치과용 접착제가 임상에서 환영을 받게 되는 것 등이 있다.

지르코니아 가공의 특성에 의해 지르코니아 역사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캐드캠이 도입이 되던 시기 2005년경 나왔던 지르콘잔사의 밀링머신이 대표적이다. CAD/CAM과 대별되어 MAD/MAM이라는 용어로 불렸는데 여기서 M은 사람을 의미하는 Man이다. 열쇠를 복사하는 원리와 동일해서 copy-milling이라고도 불렸는데, 우리가 그림에 대고 그리면 그림이 확대되어 그려지는 기구와 같은 원리이다(그림 2). 결국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인 것이다. 문제는 복사할 원본이 필요하다보니 레진과 같은 재료로 일단 수복물을 만들어야 해서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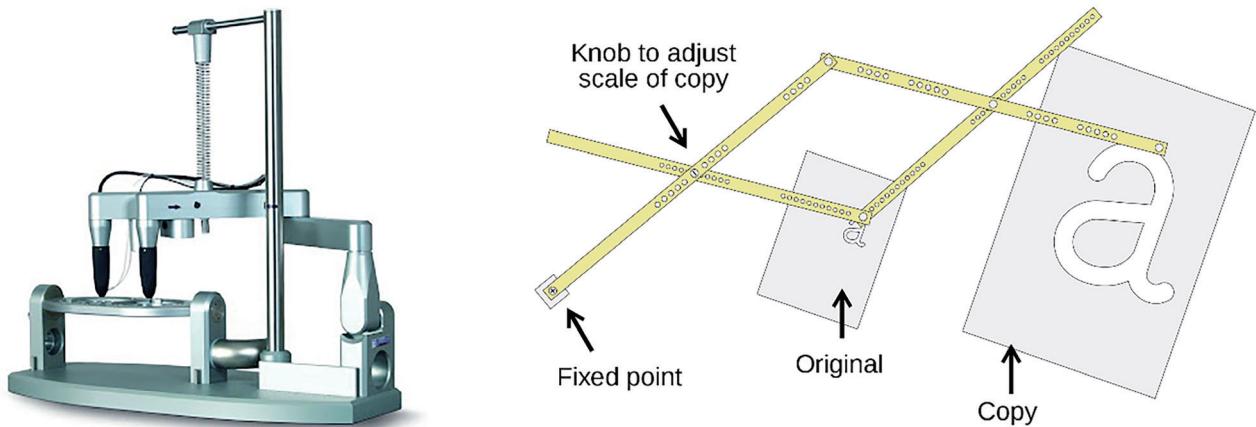


그림 2. 지르콘잔사의 Zirkograph(좌)와 원리의 설명(우).

#### 4. 초기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형태

반 소결된 지르코니아를 밀링하여 수복물을 제작하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주류로 사용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사용이 세라믹 수복물의 코어로만 한정이 되었다. 즉, PFM 수복물과 같이 코어 내지는 프레임워크로 지르코니아가 사용이 되고 그 위에 일반 도재가 올라가는 형태였다. 이렇게 초창기에 지르코니아가 코어재료로만 쓰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심미성과 물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4.1 심미성

지르코니아는 입자의 크기나 복굴절과 같은 광학적 현상으로 인해 기존 도재에 비해 낮은 반투명도를 가진다. 즉, 사람의 법랑질에 비해 불투명하다보니 심미성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물론 변색치, 금속포스트 혹은 임플란트 지대주 등의 색상을 차폐하는 데에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미수복물로 사용하기에는 반투명도가 아쉬웠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반투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입자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보통 소결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입자의 성장으로 인해 입자크기가 커지게 된다. 정방정 상이 많은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경우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반투명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소결로를 이용하여 급속 소결을 하여 입자크기를 줄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입자크기가 작아지면서 반투명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으나 인성(toughness)의 감소 등 물리적 성질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임상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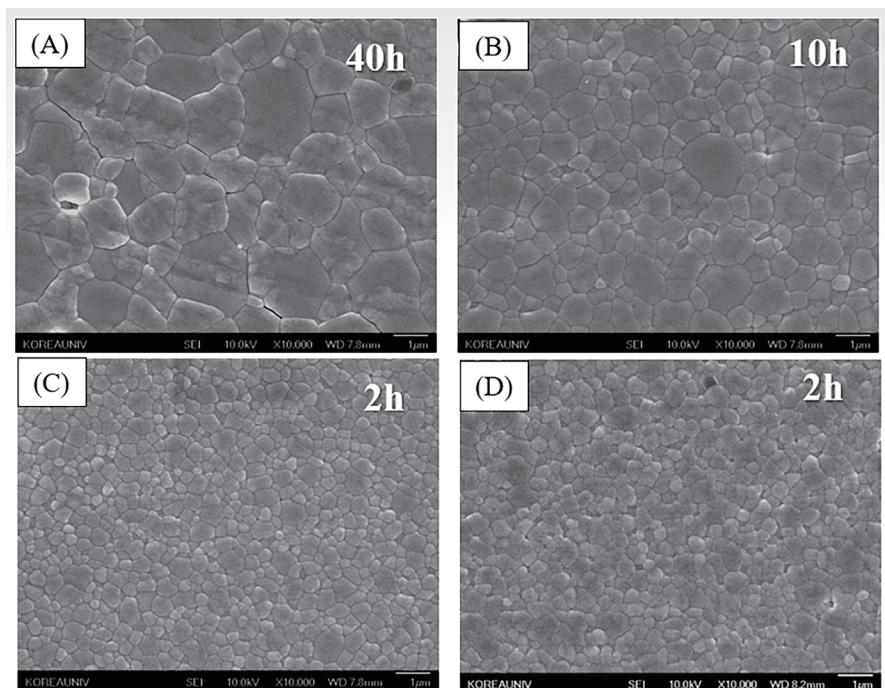


그림 3. 소결시간에 따른 지르코니아 입자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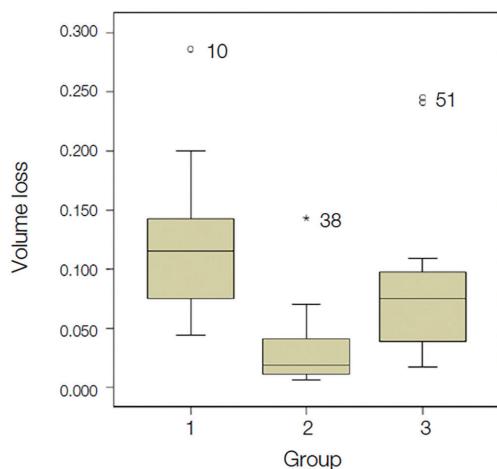
최근 반투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이트리아와 같은 안정화제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입방정 상이 증가하면서 전체적 반투명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변태강화효과가 없어지면서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에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해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면서 이트리아 함량을 높인 지르코니아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치과용 지르코니아가 3몰 이트리아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5몰 이트리아 함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투명 지르코니아’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강도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근래 캐드캠 시스템용 지르코니아 블록에도 투명 지르코니아가 적극 채용되고 있으며 치경부와 절단연의 반투명도 차이를 반영하여 하나의 블록에서도 이트리아 함량이 다른 지르코니아를 결합하여 반투명도가 높은 절단연을 가지는 수복물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블록은 멀티블록, 멀티레이어블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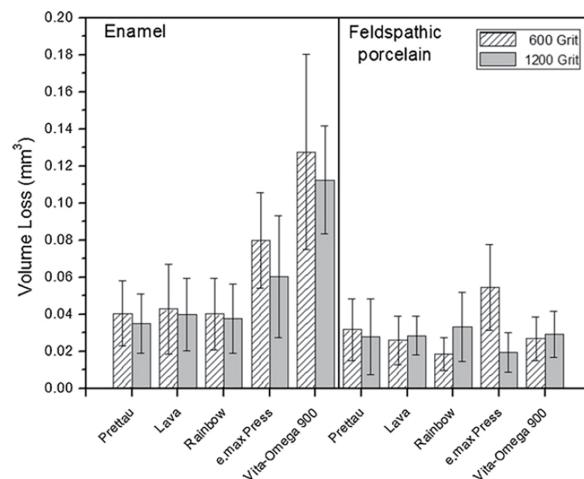
## 4.2 물성

치과수복물로서의 요구사항과 공학재료로서의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이 치과 지르코니아의 역사에 녹아있다. 그 대표적인 재료가 치과용 도재이다. 일반적인 치과용 도재는 잘 깨지지만 경도가 높고 대합치 마모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지르코니아는 일반 장석도재에 비해 경도와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합치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치과계는 매우 도전적이다보니 전체 지르코니아, 일명 통지르코니아 수복물을 초창기부터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덕택에 지르코니아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연구는 2010년 첫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르코니아가 대합치를 마모시키는 정도가 장석도재의 반 이하로 매우 적다는 것이 연구결과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표면의 거칠기가 대합치 마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현재 임상에서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표면 연마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한정, self-limiting이라는 기전 때문인데 초반에 표면이 마모된 이후에는 마모정도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에 의존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수복물 표면 연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처럼 대합치 마모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Box plots of the volume loss ( $\text{mm}^3$ ) after 240,000 loading cycles.



Mean wear volume of the enamel and porcelain cusp.  
Standard deviations are shown by error bars.

그림 4.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대합 자연치 마모량 결과들

현재 통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임상 사용도 10년이 넘어가면서 임상 케이스가 많이 축적되었다. 대합치 마모에 대한 장기적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치과의사들이 여전히 대합치 마모에 대하여 기존 도재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다 추측컨데 지르코니아 수복물은 대합치 마모는 적게 시키지만 자체의 마모저항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 교합고경의 감소에서 그 부분만 조기접촉 부위가 되면서 대합치를 마모시킨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 5. 지르코니아의 최근 연구 동향

최근 치과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고 지르코니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일명 세라믹 3D 프린팅인데 3D 프린팅의 여러 방식 중에서도 정밀도를 위하여 치과용으로는 일반적인 레진 3D 프린팅과 같이 수조에 담긴 액체를 광경화시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광경화를 해야 하므로 세라믹 파우더를 액체 레진에 섞어서 슬러리를 만들어 프린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문제는 프린팅을 한 이후에 레진을 태워서 날리는 탈지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물성과 반투명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캐드캠 시스템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정밀도 차이가 없고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도, 반투명도 모두 불리하다면 굳이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3D 프린팅만의 장점을 살리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여러 재료를 섞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치경부와 절단연쪽에 물성이나 반투명도가 다른 지르코니아로 수복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멀티블록으로 수복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데 좀 다른 것이 여러 색조의 블록을 준비할 필요 없이 원하는 색조나 반투명도의 소재를 섞어서 프린팅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복물 제작의 자동화에 색조의 매칭 개념이 합쳐진다면 색조선택 자동화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전에 임상에 도입이 되었다가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임상용 색상측정장비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날도 올 것으로 보인다(그림 5).



그림 5. 다양한 임상용 측색기들

## 6. 결언

저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지르코니아가 가지는 여러 장점으로 인해 당분간 이를 능가하는 치과용 수복재료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몰 이트리아 함유 지르코니아가 뒤늦게 치과 임상에 적용된 것처럼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성이 공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절충하여 임상에 필요한 특성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임상 도입 등으로 인해 치과수복치료의 자동화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수복물 설계는 물론 심미적 측면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지르코니아의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한국치과재료학 교수협의회 (2020), 치과재료학. 여덟째판, 군자출판사.
- Deville S, Chevalier J. Martensitic relief observation by atomic force microscopy in yttria - stabilized zirconia.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2003 Dec;86(12):2225-7.
- No GH, Ha SR, Kim SH. 임상가를 위한 특집 1-지르코니아의 역사 및 이론적 배경.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2009;47(12):798-803.
- 안진수.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심미적 특성.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0 Jun;58(7):443-7.
- 차민상, 김예진, 고경호, 박찬진, 조리라, 허윤혁. 반투명 지르코니아와 리튬디실리케이트 결정화유리의 물성에 관한 문헌고찰.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 Jun;38(2):71-80.
- Kim MJ, Ahn JS, Kim JH, Kim HY, Kim WC. Effects of the sintering conditions of dental zirconia ceramics on the grain size and translucency.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2013 May;5(2):161-6.
- Park JM, Ahn JS, Cha HS, Lee JH. Wear resistance of 3D printing resin material opposing zirconia and metal antagonists. Materials. 2018 Jun 20;11(6):1043.
- Jung YS, Lee JW, Choi YJ, Ahn JS, Shin SW, Huh JB. A study on the in-vitro wear of the natural tooth structure by opposing zirconia or dental porcelain.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2010 Sep 1;2(3):111-5.

### 〈교신저자〉

- 안진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
- Tel : 02-740-8691, E-mail : ahnjin@snu.ac.kr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프랑스

권 훈  
Kweon, Hoon

1.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2. 오르세 미술관(Musee d'Orsay)
3.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4. 앙드레말로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André Malraux-MuMa)
5. 콩데 미술관(Musée Condé)
6. Carnavalet Museum, Paris
7. Musee du val de Grace(Museum of Military Health Service), Paris
8. 파브레 미술관(Musée Fabre), Montpellier
9. Ecole des Beaux-Arts, Paris
10. 렌느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e Rennes), Rennes
11. 디종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Dijon), Dijon
12. 까르까손느 미술관(Musée des Beaux-Arts, Carcassonne), Carcassonne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프랑스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 1.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가도 후회, 안가도 후회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미술에 관심이 없는 경우라면 긴 줄까지 서면서 들어갔는데 작품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루브르에 전시된 수만 점의 작품을 하루 만에 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무조건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필자는 권유한다. 무려 35,000점 중에서 일부분만이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치과 명화 5점이 전시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워낙 방대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치과 관련 그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rcole de Roberti(1451-1496) : Saint Apollonia(1450/1475), Salle 709

Francisco de Zurbaran(1598-1664) : Saint Apollonia(1625/1650), Salle 718

Karel Dujardin(1626-1678) : The Italian Charlatans(1657), Salle 845

Gerard van Honthorst(1590-1656) : The Tooth Puller(1628)

Jan Steen(1625-1679) : The Tooth Puller(1630-5)

Gerard Dou(1613-1675) : The Tooth Puller(1664), Salle 839

Giovanni Domenico Tiepolo(1727-1804) : The Tooth Puller(1754), Salle 725

#### Ercole de' Roberti(1451-1496) : Griffoni Polyptych : St. Apollonia(1470-3)

이탈리아 화가 Ercole de' Roberti(에르콜 드 로베르티)의 그림 St. Apollonia는 1470-1473년 사이에 그려졌다 (그림 1).<sup>1)</sup> 이 그림은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플로리아노 그리포니(Floriano Griffoni)가 볼로냐의 두오모 성당인 산 페트로니오(San Petronio)에 개인 예배당을 지을 때 제단화의 측면 기둥에 그려져 있었다. 그리포니는 예배당을 위한 제단 제작을 프란체스코 델 코사(Francesco del Cossa)에게 각각 의뢰하였는데, 델 코사는 젊고 유망한 화가 에르콜 드 로베르티와 협력하여 제단을 완성하였다.



그림 1. Ercole de Roberti : Saint Apollonia (1450/1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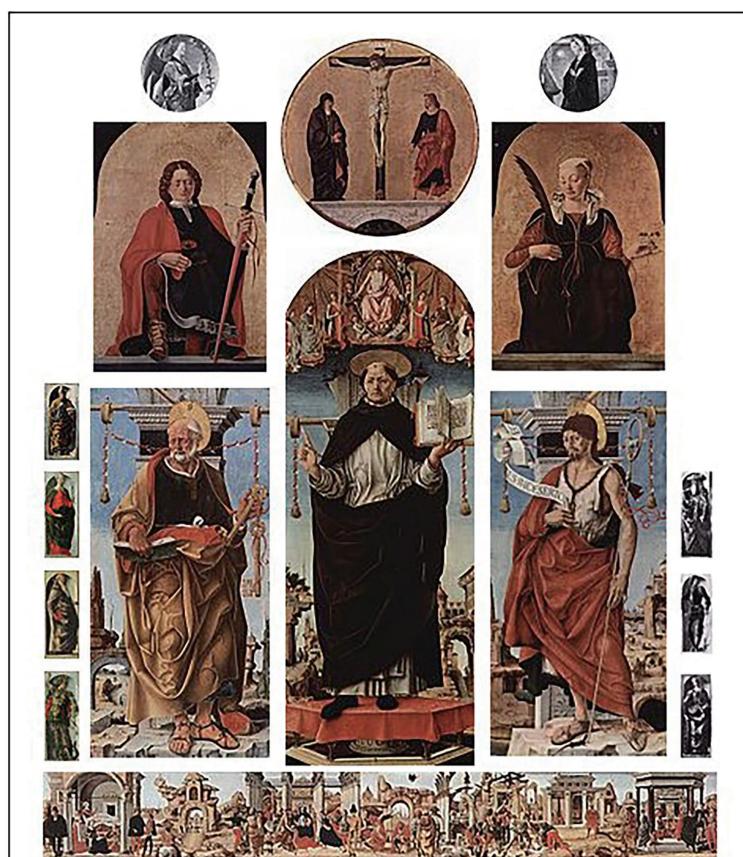


그림 2. 프란체스코 델 코사가 에르콜 드 로베르티와 협력하여 완성한 제단화. 좌측 상단에 아폴로니아 그림이 보인다.

그리포니 예배당의 제단은 나무에 템페라 그림과 측면 기둥에 그려진 8개의 성도 인물로 구성되었다(그림 2). 인물 모두를 로베르티가 그렸다. 현재 제단의 그림들은 해체되어 세계 여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 Francisco de Zurbaran(1598-1664) : Saint Apollonia(1636)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성녀 아폴로니아’는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an, 1598-1664)이 1636년에 그린 작품이다(그림 3). 수르바란은 17세기 스페인 여인 복장을 한 성녀 아폴로니아를 그렸다. 아폴로니아는 3색(황금색, 분홍색, 연두색)이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고 있으며, 원손에는 순교를 나타내는 팔마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자신의 발치된 치아를 포셉으로 쥐고 있다.<sup>2)</sup>

수르바란은 성녀 아폴로니아의 얼굴을 평온하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렸다(그림 4). 아마도 신의 은총으로 고문의 고통을 극복하는 아폴로니아를 표현한 것 같다. 그림 속의 아폴로니아는 중세시대 치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그림 3. 루브르 박물관 Salle 718에 전시중인 아폴로니아 그림.  
(사진 제공 엔와이유 어린이 치과 정양석 원장)



그림 4. Francisco de Zurbaran : Saint Apollonia(1625/1650).

### Karel Dujardin(1626-1678) : The Italian Charlatans(1657), Salle 845

검은 모자와 큰 콧수염을 가진 사기꾼이 칼로 무장하고 연단에 발끝으로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고, 흑인 소년이 무대에 앉아 만돌린을 연주하고 있다(그림 5).<sup>3)</sup> 약 상자가 열려있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보인다. 큰 걸게 그림에는 왼손에 발치 겸자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이곳은 발치사의 진료 공간으로 추정된다.



그림 5. Karel Dujardin : The Italian Charlatans(1657).

## Gerard van Honthorst(1590-1656) : The Tooth Puller(1628)

혼트호르스트는 1622년의 작품 The Dentist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 ‘The Tooth Puller’를 1628년에 완성하였다(그림 6).<sup>4)</sup> 치과의사가 서서 발치하는 모습을 다섯 명의 관객이 놀라면서 애처로운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손이 앞사람의 바구니에 있는 오리를 훔치고 있다.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도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사기(deceit)에 대한 화가의 의지가 더 뚜렷하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데 어두운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그림 7). 원숭이는 도상학적으로 역시 속임수를 내포한다. 어쩌면 화가는 그림에 도둑과 원숭이를 동시에 그림으로써 발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했을 수 있다. “발치사는 거짓말쟁이다.”라는 화가의 목소리가 그림에서 들리는 것 같다. 전혀 또 다른 관점에서 도둑의 존재를 해석해보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공익 광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우측 상단을 보면 네델란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몇 개의 단어만이 보이기에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다.<sup>5)</sup> 글씨가 적힌 문서 아래에 4개의 메달이 달려있다. 아마도 발치사의 수료증 또는 발치사의 화려한 경력을 보여주는 감사장 정도로 보인다. 이 수료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기PR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벽에 걸린 다섯개 돌은 어떤 의미일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본다(그림 8). 일단 돌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이것 또한 발치사의 경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6. Gerard van Honthorst : The Tooth Puller(1628).



그림 7. 왼쪽 상단에 그려진 원숭이는 도상학적으로 속임수를 뜻한다.



그림 8. 발치사의 경력을 암시하는 다섯 개의 돌.

### Jan Steen (1625-1679): The Tooth Puller(1630-5)

네델란드 화가 Jan Steen의 ‘Tooth Puller’는 1630-1635년에 그려진 작품이다(그림 9).<sup>6)</sup> 발치사는 파라솔 아래 무대에서 발치를 하고 있다. 그는 방금 여성의 치아를 발치한 후 발치 겸 자를 들고 팔을 뻗어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장 왼쪽에 서서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 이 사람 역시 치과를 광고하는 만담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무대에는 발치사의 경력을 자랑하는 대형 그림이 걸려 있다. 오른쪽 전경에는 펌프에 기대어 목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발치사 무대가 있는 시장 뒷편으로 몇몇 주택의 배경이 보인다. 부엉이가 파라솔 위 높은 횃대에 앉아 있는데, 서양에서 부엉이는 현명함을 뜻한다. 따라서 부엉이는 치과의사의 실력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촘촘하게 그려진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전체 장면이 불분명해 보이며, 이것은 아마도 어떤 원본 그림의 일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Jan Steen : The Tooth Puller(1630-5).

### Gerrit Dou (1613-1675): The Extraction of Tooth(1635)

렘브란트의 첫 번째 제자인 네델란드 풍속화가 Gerrit Dou는 1635년 ‘The extraction of Tooth’라는 작품을 남겼다(그림 10).<sup>7)</sup> 헤릿 도우는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정교한 회화를 제작하였다. 발치하는 장소가 외부가 아니라 실내여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며 탁자에 놓인 두개골과 바이올린이 눈에 띈다. 두개골은 해부학 공부, 바이올린은 치과의사의 취미를 위한 물건일 거라는 상상을 해본다.

환자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다. 그 뒤에는 모피 망토를 입은 나이든 치과의사가 서 있는데, 그는 도구를 사용하여 발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자세와 꽉쥔 주먹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다. 뒷벽에 있는 열린 찬장의 선반에는 약을 조제하는 항아리와 병들이 놓여 있다. 환자 옆에는 계란 바구니, 막대기, 모자가 있다. 배경에는 몇 개의 병, 모르타르, 바이올린, 해골, 지구본, 책이 있는 몇 개의 선반이 있다. 전경 왼쪽에는 테이블 위에 면도용 그릇이 있고, 작업자 뒤에는 또 다른 그릇이 벽에 걸려 있다.



그림 10. Gerard Dou : The Tooth Puller(1664).

### Giovanni Domenico Tiepolo (1727-1804) : The Charlatan(1755)

'The Charlatan'은 베네치아 풍속화가 Giovanni Domenico Tiepolo 1755년에 그린 작품이다(그림 11).<sup>8)</sup> 그림은 18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축제가 열리는 장터 같은 곳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를 묘사하고 있다. 무대에 서 있는 남자는 발치한 치아를 포셉으로 들고 큰 목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 옆에서는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는 남자가 환자의 입안을 검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홍보용으로 사용 중인 대형 현수막과 원숭이가 관찰된다.



그림 11. Giovanni Domenico Tiepolo : The Tooth Puller(1754).

## 2. 오르세 미술관(Musee d'Orsay)

Honore Daumier(1808-1879) : La bons bourgeois(1847)

Edouard Vuillard(1868-1940) : Portrait of Dr. George Viau(1914)

: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1934)

오르세 미술관 1층 사실주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 전시실 바로 옆 공간에 사람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다. 인형들은 풍자만화에 나오는 프랑스 정치인들인데, 인형 제작자인 오노레 도미에(Honore Daumier, 1808-1879)는 화가이자 정치 풍자 만화가이다(그림 12). 밀레의 '이삭줍기'는 농촌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였다면 도미에의 '세탁부'는 도시 여성 빈민의 고단한 삶이다. 빨랫터에서 빨래한 후 가파른 계단을 아이와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도미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유명 화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피카소는 도미에를 19세기 예술의 미켈란젤로라는 찬사를 보냈고, 밀레는 도미에의 명암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고흐는 자신의 편지에서 도미에를 50번 넘게 언급하였고, 드가는 도미에의 판화를 750점이나 소유하였다. 미술사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난 도미에는 사회를 풍자하는데도 앞장섰는데 그의 작품들 중에 치과를 묘사한 것들도 꽤 많다.



그림 12. 2018년 오르세 미술관 오노레 도미에 전시실 안에서.



그림 13. Honore Daumier의 판화  
La bons bourgeois(1847).

환자는 안락의자에 등을 대고 앓아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있다(그림 13).<sup>9)</sup> 치과의사는 그의 왼쪽 옆에 서서 왼손으로 발치를 하고 있다. 그는 오른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등받이에 눌러 고정한다. 환자와 치과의사의 긴장과 노력을 고려하면 발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림 우측에는 램프 세트, 유리잔, 두 개의 Tooth key(Garangeot)가 놓여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다. 이 그림은 1847년 5월 4일 Le Charivari에 게재되었다.

필자가 오노레 도미에를 알게 된 것은 치과 인형 수집 덕분이었다.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있지도 않는데 취미가 또 다른 취미를 불러들이면서 필자로 하여금 점점 미술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인지 도미에의 작품을 표현한 피겨린에 특별히 애착이 가며(그림 14), 운이 좋게 신문 Le Charivari에 실린 도미에 풍자만화 원본을 구입할 수 있었다(그림 15).

형태는 단순화하고 혼합된 색상으로 선호하는 나비파의 대표적인 화가 에두아르 뷔야르(Edouard Vuillard, 1868-1940) 작품 중에서 치과를 배경으로 하는 초상화 2점이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sup>10)</sup> 그는 특히 초상화에서 절제된 공간미와 빛의 유희가 펼쳐지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작업을 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뷔야르의 1914년 작품 'Portrait of Dr. George Viau'이고 주인공은 치과의사 George Viau(1855-1939)이다(그림 16).



그림 14.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을 피겨린으로 제작된 소품(필자 소장품).



그림 15. 프랑스 Le Charivari 1847년 5월 4일자 신문에 게재된 원본 그림(필자 소장품).



그림 16. Edouard Vuillard의 Portrait of Dr. George Viau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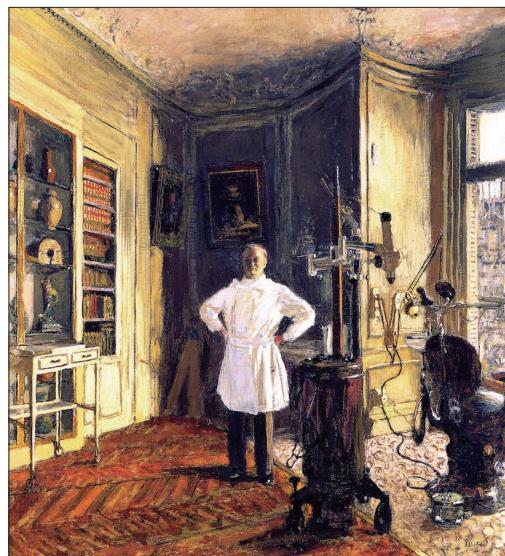


그림 17. Edouard Vuillard의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1934).

Viau는 치과의사면서 미술품 수집가였고 또한 많은 화가들을 후원도 하였다. 그 화가들의 면면을 보면 세잔(Cezanne), 모네(Monet), 르느와르(Renoir), 투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등이 있다. 에듀아르 뷔야르도 그 중 한명이었고 어쩌면 치과의사 Viau의 환자였을지도 모른다. Viau는 파리 치과학교(School of Paris Dentiare)를 설립하였고 이 학교 박물관에 상당한 금액도 기부하였다. 뷔야르의 1937년 그림 ‘Portrait of Doctor Louis Viau in his office’에서는 그 당시 Viau의 치과 진료실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17).

### 3.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 Louis Leopold Boilly(1761-1845) : Steel Balm(1827)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인 루이 레오폴드 부알리(Louis Leopold Boilly, 1761-1845)의 그림은 일화적 주제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서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낸다. 1827년 작품 ‘The Steel balm’도 그 중 하나이다(그림 18).<sup>5)</sup> 밤(balm)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립밤(lip balm)과 같은 의미이다. 기능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연고이다.

제목에서 Steel balm은 어떤 의미일까? 그림 제목이 ‘The Steel balm’인 이유는 금속 물체(Tooth key)로 치아를 발치한 후 통증이 감소하고 평화가 돌아옴을 의미한다. 19세기에 치통의 치료는 발치였고 발치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발치기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치통을 치료하는 기구라는 뜻으로 제목을 Steel Balm이라 한 것 같다. 그림에서 술자와 환자의 손에도 나름 메시지가 있다. 환자의 손동작을 보면 마치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들



그림 18. Louis Leopold Boilly : Steel Balm (1827).

릴 정도로 에이프런을 꽉 쥐고 있다. 반면에 술자는 고정을 위해 왼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누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작가는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에서 한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 앓아 있다. 환자는 방어적으로 팔을 치켜들고 양손에 핏줄까지 보일 정도로 에이프런을 꼭 쥐고 있으며 그의 무릎도 보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고통이 담겨있다. 술자의 머리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대머리 치과의사는 환자의 상악 전치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위치인 환자의 뒤에 대각선으로 서 있다. 치과 의사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집중력이 드러난다. 술자의 머리카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다.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고정한 모습도 눈에 띈다. 환자의 의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에이프런이 그림에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술자의 위치가 다소 강조되어 발치되는 치아가 그림의 중심이 된다. 옷의 색상은 차분하게 표현되었으나, 머리와 손은 면도칼처럼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석판화는 부알리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다.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두 얼굴을 정면으로 그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정면 접근 방식은 관객을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시킨다. 판화, 특히 석판화 분야에서 작가가 인물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가까이에서 묘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분명히 뚜렷한 예술적 성격의 작품이다. 이미지의 뉘앙스, 특히 손의 정맥, 얼굴의 피부색 및 실제와 같은 머리 카락 표현으로 인해 Steel Balm은 그의 석판화 순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필자의 치과 대기실 벽면에 부알리 작품의 모작이 걸려있다(그림 19). P. Seiler라는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작가의 싸인 아래에 제작년도가 1945년으로 적혀있다. 75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액자 틀은 부분적으로 손상된 곳이 많지만, 그림의 물감 색상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아 보인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작된 부알리의 그림도 필자의 소장품이다(그림 20).



그림 19. P. Seiler의 부알리 그림 모작(1945, 필자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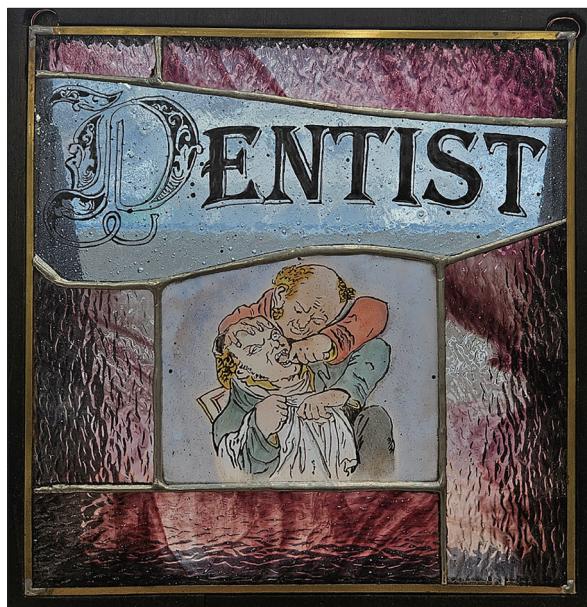


그림 20. 부알리 그림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필자 소장품).

## 4. 앙드레말로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André Malraux-MuMa)

Edgar De Gas(1834-1917), Laundry women with toothache(1870)

: Laundrywoman with an aching tooth(1872)

: Miss La La at the cirque Ferando(1879)

파리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항구 마을 르 아브르(Le Havre)는 인상파의 성지다. 바로 이곳에 파리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인 앙드레 말로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Andre Malraux)에 치통이 생생하게 표현된 드가의 그림 ‘치통을 앓는 세탁부(1870-1872)’이 있다(그림 21).

수십 명의 인상파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 중에 서 아마도 유일하게 치과와 관련된 그림이지 싶다. 19세기 치통은 누구나 겪었을 흔한 증상이었고 치과 치료는 더 힘들게 받았던 시절이었다. 드가의 작품에는 거의 여성만 등장하는데 주로 발레리나, 가수, 배우, 귀부인 등이었다. 드가는 치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직업군 중에서 왜 ‘세탁부’를 선택하였을까? 19세기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얼마나 있었을까마는 그중에서 세탁부는 아마도 탑3에 포함될 정도로 극한 직업이었다. 게다가 빨래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으니까 힘듦은 더욱 배가되었을 것이다.

19세기에도 치통이 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응급치료는 붕대를 턱에 단단하게 동여 메는 것이다. 치통이 있는 뺨에 약을 바르고서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치료지만 그땐 저것이 최선이었다. 세탁만으로도 일상이 힘든데 젊은 아가씨에게 치통이라는 큰 짐까지 얹혀졌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toothache scarf’였다. 그림에는 작가의 생각과 인생이 담겨있다고 한다. 따라서 드가도 치통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추정만 가능하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 마지막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세탁부가 표현된 그림에는 또 다른 고통이 담긴 스토리가 있다. 드가의 이 작품은 1961년 앙드레 말로 미술관의 소유가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1973년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sup>12)</sup> 이 그림은 37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타났다가 압수 조치를 받아 다시 현재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커스를 좋아했던 에드가 드가는 이를 악 문채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Miss La La at the cirque Ferando(1879) 그림으로 남겼다(그림 22). 작품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 라라다. 하나의 밧줄에 메달린 라라의 모습이 그림만 보아도 아찔해 보인다. 현재 이 작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에드가 드가는 라라양의 서커스 연기에 사로잡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녀의 위태로움과 불안감을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을 보면서 라라의 치아는 어떤 상태일지가 더 궁금하였다. 또한 단순히 밧줄만 치아로 물고 있을까?



그림 21. Edgar De Gas : Laundry women with toothache (1870-2).



그림 22. Edgar De Gas : Miss La La at the cirque Ferando(1879).



그림 23. 미국 볼티모어 국립 치의학 박물관 전시실 입구에 있는 서커스 곡예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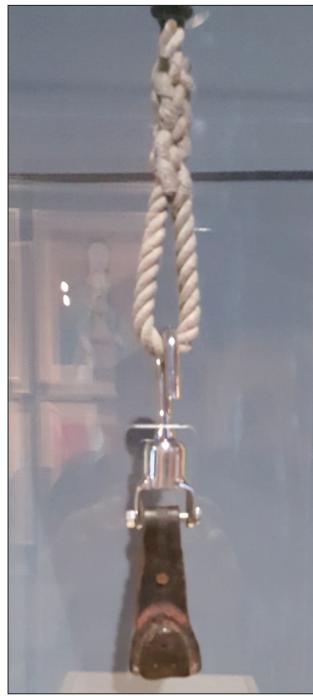


그림 24. 곡예사가 사용한 경화용 고무로 제작된 마우스피스.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인 메릴랜드 치과대학에 가면 Dr. Samuel D. Harris National Museum of Dentistry 입구에 들어서면 에드가 드가의 작품과 비슷한 마네킹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그림 23).<sup>13)</sup> 남자가 공중 그네를 타면서 줄에 메달린 소녀를 오로지 치아로만 꽉 문채로 곡예를 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공연을 Iron-jaw 또는 dental trapeze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아와 악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박물관 전시실안에 1950년대 iron-jaw 공연으로 유명한 12세 소녀 Penny Wilson이 실제 사용했던 마우스피스가 진열되어 있다. 곡예사의 상하악 치열이 재현되어 제작된 경화 고무 마우스피스, 가죽 끈 그리고 금속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4).

## 5. 콩데 미술관(Musée Condé)

### Jean Fouquet(1415-1480) : Hours of Etienne Chevalier(1452)

파리 북쪽 샤를 드골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샹티 성(Chateau de Chantilly)안에 루브르 박물관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콩데 박물관이 있다. 샹티성의 마지막 소유자 오말공작(Duke of Aumale) 앙리 오를레昂(Henri d'Orleans)이 1886년 샹티 성, 공원과 그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콩데 미술관이 탄생하였다. 샹티성은 또 다른 히트 상품을 탄생시켰다. 케이크와 커피에 사용되는 생크림(크림 10대 설탕 1의 비율로 휘핑해서 만듦)을 크림 샹티(Crème Chantill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샹티성에서 균무하는 요리사 바텔이 최초로 만들어서 샹티성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미술관의 상뚜아리오(Santuario)에 라파엘로의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장푸케(Jean Fouquet, 1415-1480)의 작은 그림(A4 사이즈 반)들 중에서 치과의사 성녀 아폴로니아의 순교 장면이 있다(그림 25).<sup>14)</sup>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명을 받은 사형 집행인이 아폴로니아를 꽁꽁 묶고 머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치아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폴로니라 순교 그림은 장푸케가 1452년경에 템페라(안료와 매체가 혼합된 그림 물감의 일종)로 그린 Hours of Etienne Chevalier인데 원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8세기에 찢겨져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인 40장을 오말 공작이 1891년 독일 은행가 브렌타노(Brentano)의 아들에게서 이십 오만 프랑에 구입한 채식본(illuminated books)이 콩데미술관에 전시중이다(그림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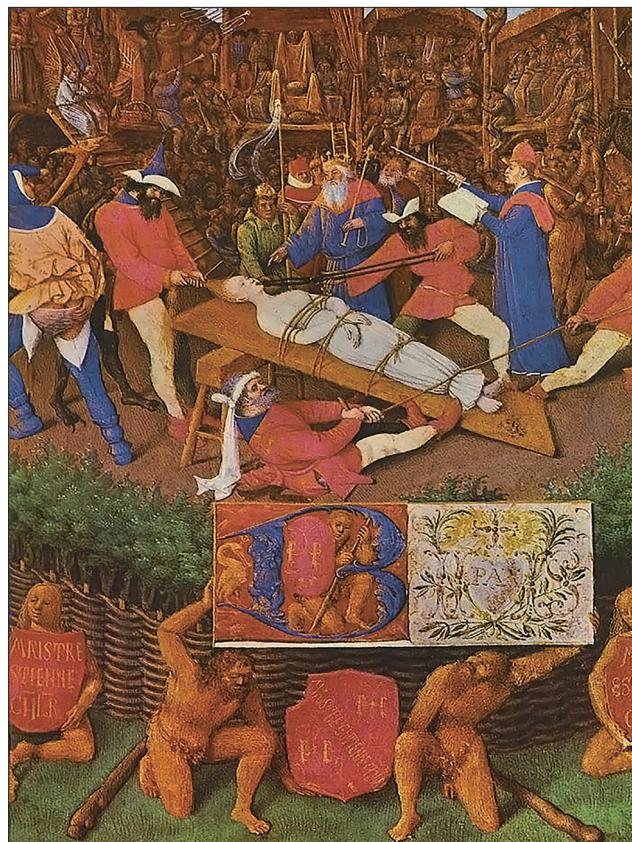


그림 25. Jean Fouquet(1415-1480)의 채식본.



그림 26. Martyrdom of Saint Apollonia.



그림 27. 2015년 콩데미술관 장 푸케의 작품 앞에서.

## 6. Carnavalet Museum, Paris

프랑스 의회 의장 Jacques des Ligneris는 1560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대저택을 건축하였는데 Hotel Carnavalet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바스티유 감옥 열쇠, 단두대 모형과 같은 프랑스 혁명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은 파리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르나바레 박물관에는 1792년 수채화 물감으로 제작된 판화가 있는데 프랑스 화파로 추정되며 작자 미상이다. 그런데 그림 제목이 ‘The National Dentist’로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림 28).<sup>11)</sup> 치과의사가 성직자의 치아를 발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부님이 무척 고통스럽게 보인다. 이 그림에서 발치는 교회 재산의 국유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림 28. 작자 미상 : The National Dentist.

## 7. Musee du val de Grace(Museum of Military Health Service), Paris: Georges Eveillard (1879~1965)

군인 건강 서비스 박물관은 본래는 1667년 바ロック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기간인 1793년부터는 발 드 라체(Val de Grace) 육군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1850년에는 군인 의학교도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의 처음 목적은 군대 의학교 학생들의 해부학 교육을 위해 꾸며졌었는데, 188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그림과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군대 의학의 발전사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군대 의학 역사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Georges Eveillard의 작품 ‘Military Dentist at the American Hospital of St. Nazaire(1918년)’이 있다(그림 29).<sup>11)</sup> 백년 전쯤 사용되었던 유니트 체어와 가운은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제목에서 언급된 생나제르에 있는 미국 병원에 주목이 간다. 왜냐하면 생나제르는 지정학적으로 프랑스 서쪽 끝 대서양 근처의 루 아르강 어귀에 있기에 미국과 교역이 수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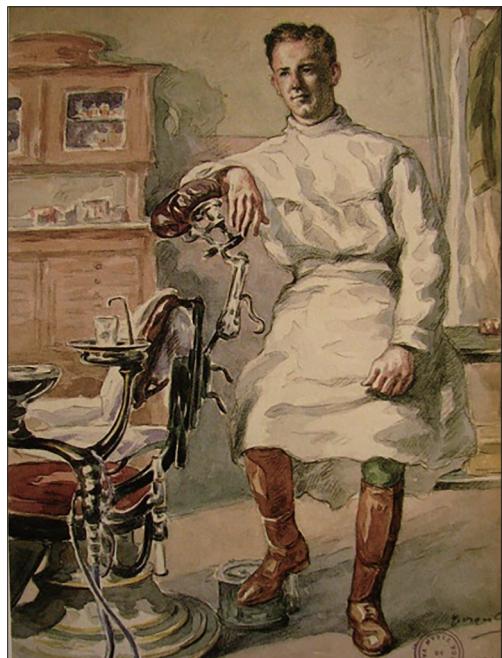


그림 29. Georges Eveillard : Military Dentist at the American Hospital of St. Nazaire(1918년).

## 8. Musee Fabre, Montpellier: David Ryckaert (1612~1661)

눈부신 지중해의 풍경이 펼쳐지는 남프랑스 여행 루트에 몽펠리에가 있고 그 고풍스러운 도시안에 파브르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의 명칭은 과학과 예술의 절묘한 조합으로 곤충학자 Jean Henri Fabre(1823-1915)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파브르가 몽펠리에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몽펠리에 의과대학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곳이다.

파브르 미술관에는 네델란드 화가 David Ryckaert의 작품 ‘The toothpuller’가 있다(그림 30).<sup>3)</sup>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7세기 작품이다. 작은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여관의 외양간에서 나이든 발치사가 어린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두 사람과 배경의 사람 모두 단순한 옷을 입고 있다. 항아리와 병이 있는 테이블은 이 공간이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젊은 환자는 낮은 상자에 기대어 있고, 발치사는 그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치아를 당기고 있다. 왼쪽 녹색 천으로 덮인 탁자 위에는 시럽병(syrup jar), 약병(apothecary jars), 병, 졸업장(diploma)이 놓여 있다. 오른쪽 전경에는 음식과 짚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다. 배경에는 굴뚝이 있고, 그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한 남자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인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9. Ecole des Beaux-Arts, Paris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라는 이름의 예술학교들이 지방마다 여러 개 있다. 그중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마주보고 있는 파리 보자르 즉 파리 국립 예술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역사를 갖는 예술 명문이다. 6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하고 유독 이 학교만은 프랑스 대통령이 교장을 임명 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큰 비중이 있는 학교이다.

파리 보자르는 45만점의 예술품과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수집품을 갖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The Charlatan’이라는 제목의 그림 한 점이 있다(그림 31).<sup>15)</sup> 진료하는 사람 뒤쪽으로 발치한 치아



그림 30. David Ryckaert : The Toothpuller.



그림 31. 작자 미상 : The Charlatan.

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큰 프랑이 인상적이고 그 아래에는 다음 진료할 환자를 검진하는 또 다른 치과의사가 보인다. 많은 화가들이 작품에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를 자주 그려 넣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꼭 있다. 이 그림에서도 개가 있는데 홀로 외롭게 서 있으며 시선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는 곳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쩌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개의 주인일지도 모른다.

## 10. Musee des Beaux-Arts, Rennes: David Teniers the Younger (1610~1690)

프랑스 북서쪽 브르타뉴(Bretagne) 수도인 헨느(Rennes) 미술관에는 다비드 테니르스(David Teniers the Younger)의 작품 ‘The tooth extractor’이 있다(그림 32).<sup>3)</sup> 풍속화와 실내 묘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테니르스는 그 시기의 생활 모습을 그린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시절에 마늘은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보통 집 대문에 붙여놓는데 진료하는 벽에 걸려있다. 어쩌면 치과에 온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치과의사의 배려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제목은 발치하는 치과의사이지만 그림 속 치과의사는 기구를 펜슬 그립으로 하여 충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발치하기 전 폭풍 전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 치과의사 바로 뒤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여인이 서있고, 앉아 있는 탁자 앞에 서있는 소년은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약을 컵에 따르고 있다. 탁자 위에 있는 병들에 담겨있는 것은 아마도 발치 중 또는 발치 후에 사용될 약물처럼 보인다. 한편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기구들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상에 맡긴다.



그림 32. David Teniers the Younger : The Tooth Extractor.

## 11. Musee des Beaux-Arts, Dijon

Thomas Gerard (1663~1720) : The Charlatan  
School of Teniers : The village doctor

파리의 동남쪽에 있는 디종(Dijon)은 브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중심 도시이며, 브르고뉴 공국의 궁전에 있는 디종 미술관(1787년 개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이다.

이 미술관에는 네델란드 화가 Thomas Gerard의 작품 ‘The Charlatan’이 있다(그림 33).<sup>3)</sup>

그림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병과 책들, 유리병을 들고 있는 노인은 신비한 묘약을 제조하고 있는 연금술사처럼 보인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집트에서 시작된 연금술은 속임수 마술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중세시대에는 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18세기에도 주술적인 약물을 믿는 일부 지방도 있었다.

그림에서 앓아 있는 사람은 환자의 소변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의사이고 그림의 우측에 서있는 사람은 환자의 치아를 치료중인 외과의사다. 환자는 의자에 앓아 있고 반면에 술자는 선채로 치료하고 있고 진료 보조자는 등불을 비추고 있다. 역시 이 그림에서도 술자는 기구를 펜슬 그립으로 잡고 뭔가를 긁어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림의 제작 연도가 확실하지 않으나 17-18세기 네델란드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의 일상으로 추측된다.

프랑스 디종의 Musée des Beaux-Arts이 소장하고 있는 ‘The Charlatan’과 거의 동일한 그림 ‘Young Woman Visiting a Doctor and Alchemist’이 2023년 독일 경매시장에 나왔다. 예상 금액은 12000-15000 유로(1700-2100만원)이었고, The charlatan과 유일한 차이점은 그림의 오른쪽에 소년이 있다는 것이다(그림 34).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의료 ‘상점’을 엿볼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다(그림 35). 외과의사는 치료를 받는 남성의 발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다양한 의학적 진료가 이곳에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에는 시럽 병이 있고 전경에는 연고 병과 백립 병이 있다. 외과의사 옆에는 17-18세기 에 제작된 발치용 집게와 두 개의 치석 제거 기구가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한 소년이 테이블에서 봉대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 탁자 위에는 소작용 속이 들어있는 돌솥이 올려져 있고, 그 안에는 멋진 꾸러미가 들어있다.

오른쪽 배경에는 벽난로 앞에서 발치사가 치료에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의자에 앓아 있는 환자 바로 앞에 서 있다. 펠리컨이나 tooth key로 상악 치아를 발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두 팔로 발치를 껴안는다. 배경의 화분 선반과 천장의 악어가 그림을 완성한다. 7인의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수많은 사물의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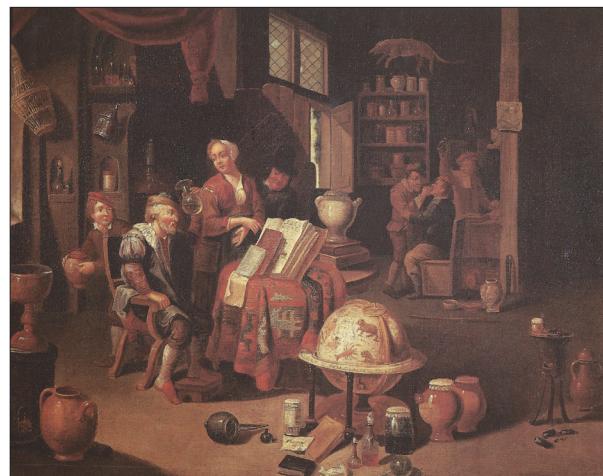


그림 33. Thomas Gerard : The Charlatan.



그림 34. Thomas Gerard : Young Woman Visiting a Doctor and Alchemist.



그림 35. School of Teniers : The village doctor.

## 12. Musee des Beaux-Arts, Carcassonne: Henri Baron (1816~1885)

남프랑스의 까르까손느는 1100년대에 지어진 성벽으로 도시 전체가 둘러싸여 있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까르까손느 미술관은 Bastide Saint-Louis (Bastide: 프랑스 남부에서 전술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 단기간에 건설된 소도시)에 있는 다소 황폐한 건물에 있다. 이곳은 한가로운 분위기이지만 둘러볼 전시실이 꽤 있으며 주로 근세의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Henry Baron의 작품 'The first Tooth'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의 하악 치아를 손으로 가르키고 있고 그 주위로 4명의 어른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그림 36).<sup>11)</sup> 화가 Baron은 1846년에는 오말 공작(Duke of Aumale)으로부터 그림 주문을 받았고, 1867년 튜릴리 궁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의 그림을 유진 황후(Empress Eugenie)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따라서 'The first tooth'도 어떤 귀족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작품으로 추정되며 그림속의 분위기 또한 그렇게 보인다.



그림 36. Henry Baron : The First Tooth.

### 참고문헌

1. [https://fr.wikipedia.org/wiki/Polyptyque\\_Griffoni](https://fr.wikipedia.org/wiki/Polyptyque_Griffoni)
2.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5
3. Dr. F.E.R. de Maar : Vijf eeuwen tandheelkunde in de Nederlandse en Vlaamse kunst, Nederlandse Maatschappij tot bevordering der Tandheelkunde, 1993
4. Par C. Bition : Histoire de l'art dentaire à travers la peinture occidentale, Le chirurgien Dentiste De France, N(513) Du(5), 1990
5. G.J. Schade :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6. Ring M.E. :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Mosby-Year Book Inc, 1985
7. JJ Pindborg and L. Marvitz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LTD, 1961
8. 권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2
9. Bernard S. Moskow : The dental cartoon of Honore Daumier(1808-1879), JADA(102):82-86, 1981
10. Par C. Bition : Histoire de l'art dentaire à travers la peinture occidentale, Le chirurgien Dentiste De France, N(509) Du(8), 1990
11. Pierre Baron : L'art dentaire à traverse la peinture, ACR Edition, 1986
12. <https://www.muma-lehavre.fr/en/collections>
13. 권훈 : 세계 치과 박물관 여행,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 158, No 4, 2020
14. Par C. Bition : Histoire de l'art dentaire à travers la peinture occidentale, Le chirurgien Dentiste De France, N(512) Du(29), 1990
15. A.J.M. Plasschaert : Canon van de tandheelkunde, KNMT, 2014

###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 윌리엄 샤이플리 다이어리

김 준 혁  
Kim, Junhewk  
김 수연  
Kim, Sooyeon  
신 유석  
Shin, Yooseok  
이 주연  
Lee, Jue Yeon

- I. 서문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1. 1915년
  - 2. 1917년
  - 3. 1918년
  - 4. 1919년
- IV. 토의
- V. 결론
- VI. 참고문헌

# 윌리엄 샤이플리 다이어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준혁, 김수연, 신유석, 이주연

## 초록

**배경** 1915년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에 과장으로 부임하여 한국 최초로 치의학교육을 시작했던 윌리엄 샤이플리는 사역 기간 내내 일기를 기록하였다. 해당 문헌이 최근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으므로, 이를 문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 1916, 1920년의 일기장은 분실되었으므로, 1915, 1917~1919년의 샤이플리 일기를 전사하고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샤이플리가 사역 기간 여러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는 샤이플리의 사역과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의 설립이 한국 최초의 치의학 교육 시행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한다.

**토의** 샤이플리의 사역은 현지 치과의료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비록 그의 노력은 좌절되었지만,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은 이후 진료에 힘쓰는 한편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런 후속 경로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샤이플리의 노력을 문헌으로 확인하였다.

핵심어 윌리엄 샤이플리,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 1915년, 치의학 교육

## I. 서문

윌리엄 샤이플리(William J. Schieffley, 1892~1958)는 미국 치과의료 선교사(dental missionary)로 청년 시절부터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려 하였으며, 템플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개업하였다가 조선 선교를 위해 떠나 1915년부터 1920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였다(그림 1). 그는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을 설립하고 초기 운영을 맡았으며, 사역 기간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과 함께 한국에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방해, 세브란스병원과의 견해차 등으로 뜻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샤이플리는 사역 기간 진료를 하는 한편 기회가 닿을 때마다 치의학 교육에 열심이었다. 이는 그의 의료선교 방향이 현지인의 의료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현지 의료인의 양성이었기 때문으로(권호근, 2012년 4월), 비록 그가 교육기관 설립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이 교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이후 사역했던 존 부츠(John L. Boots, 1894~1983), 존 맥안리스(John A. McAnlis, 1896~1967) 선교사가 한국인 치과의사의 수련에 초점을 맞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5).

이런 내용이 공식 보고서 등의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샤이플리 선교사가 사역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선 샤이플리 선교사가 남긴 일기가 있으므로, 일기 내용을 검토하여 그가 사역 중 어떤 업무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샤이플리 선교사의 사역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의 설립 방향성과 이후 족적의 근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샤이플리 선교사가 사역 기간 중 남긴 일기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그의 사역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 방법

샤이플리 선교사는 1915년부터 1920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였으며, 사역 기간 내내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916, 1920년의 일기장은 보관되지 않았으며, 1915, 1917~1919년 그가 자필로 기록한 일기는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Wright Library에서 전자화하여 보관하고 있다.<sup>1)</sup> 일기에는 잉크가 번지거나 흘려 쓴 글씨로 인해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일기를 먼저 활자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용역으로 Mr. Jamie Boyd가 일차로 활자화한 일기는 연구진에 의해 이차 검토를 거쳤다(김준혁 외, 2021).

검토 결과, 1915년 1월 1일부터 1919년 12월 31일까지 총 1,463항목의 일기를 확인하였다. 간단한 기록이나 일정만 적힌 항목부터 시작하여 활동에 대한 다분히 상세한 기록이 있는 항목까지 양과 질에서 기록은 다양성을 보인다. 이중,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추린 다음, 각 해의 전체 일정을 요약하였다.



그림 1. 사역 중 촬영한 샤이플리 부부의 모습(복원 결과물)

1) Missionaries – Scheifley, William J. Wright Libra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https://go.exlibris.link/NGw9kjhk>>

### III. 연구 결과

#### 1. 1915년

샤이플리 선교사는 치과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어 필라델피아에서의 개업을 정리하고 루스와 결혼, 일본을 거쳐 조선에 당도한다. 3월 23일, 4월 1일에는 장티푸스 접종을 받았다.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맹장염 수술로 입원 했다. 6월 5일부터 12일까지 뉴욕의 선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6월 30일 여권을 받았다. 8월 7일 폐리 마루를 타고 일본행, 8월 30일 오후 9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선교 회의에 참석한 뒤, 샤이플리는 10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진료를 시작한 뒤의 기록은 점점 짧아진다.

10월 25일에는 감염증(원문은 “아메바 3례”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막 세균학이 나타난 시점이라 세균이나 감염 원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을, 12월 18일에는 에테르 마취아래 발치 및 누공 개방술을 시행했음을 기록하였다.

일자	원문	해석
1915-08-07	Left on Ferrys Maru? at 1 p.m.	오후 1시 폐리 마루로 떠났다.
1915-08-30	Reached Seoul 9 p.m. Met Mrs. Morris en route also Mr. Biers of American Board. Miss Bergman and Mr. Biers left at ? Met ? en route.	오후 9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모리스 부인, 아메리칸 보드의 바이어스 씨를 만났다. 버그만 양과 바이어스 씨는 … 떠났다. 오는 길에 …를 만났다.
1915-09-15	At mission meeting. At Holderofts for lunch and dinner.	선교 회의. 점심과 저녁은 홀더로프트에서 먹었다.
1915-09-16	At mission meeting. At Holderofts for lunch and Miss Doris's for dinner. For a walk p.m.	선교 회의. 점심은 홀더로프트에서, 저녁은 미스 도리스 집에서 먹었다. 오후에 산책했다.
1915-09-17	At annual meeting. At Burnheisels? for dinner. Concert p.m.	연례 회의. … 저녁 먹었다. 오후에 콘서트에 갔다.
1915-09-22	Left Pyongyang 1:39 p.m. At school at 7:30 p.m.	오후 1시 39분 평양을 떠났다. 오후 7시 30분에 학교에 갔다.
1915-10-25	Studied a.m. At college p.m. Had 3 patients. 3 cases with amoeba? At party at Hardy's p.m. In ricksha.	오전에 공부했다. 오후에 대학. 3명의 환자가 있었다. 감염증 세 증례였다. 오후에 하디 댁에 파티가 있었다. …
1915-12-18	Usual day. Extracted 3 teeth & opened sinus? under ether for Korean.	평소와 같음. 에테르 마취 하에 한국인 환자의 치아 3개를 발치하고 누공을 열었다.

#### 2. 1917년

1917년 1월 6일 개학했다. 1~3월 학기의 강의 일정을 잡았다. 세브란스병원에 1914년 설립된 연구부 소속 교수인 러들로(Alfred I. Ludlow, 1876~1961, 외과), 밀즈(Ralph G. Mills, 1884~1944, 내과), 반버스커크(James D. van Burskirk, 1881~?, 기초학)와 샤이플리 선교사는 깊은 친교를 나누었다. 그는 한국인의 구강 상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근거자료를 만들었다. 에비슨 교장과 치과 진료에 대해 상의하고, 세브란스(Louis Severance, 1838~1913)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와도 서신을 교환하였고, 교직원들의 치과 진료도 성심껏 했다. 일요일에는 주일학교에 나가 영어를 가르쳤으며, 주일예배와 본부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추운 날씨와 열악한 시설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업무를 마치고 운동, 게임, 독서를 일정하게 했다.

2월 미국에서 가스히터, 보일러, 재봉틀이 도착했다. 샤이플리 선교사는 마취 후 발치. 방사선 사진 촬영, 금관 제작 등 치과 일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치과학교실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낙담하여 업무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러들로 교수와 상의했다.

3월에도 주중에는 매일 바쁘게 일했다.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압축 공기를 사용했다. 선교부에 의료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고 이사회에도 참가했다. 3월 29일 의대 졸업식 때. 남학생 8명이 졸업했다. 반버스커크 교수가 사회를 보았는데 일본어를 주로 사용했다. 30일 교직원 만찬을 한식당에서 가졌다.

4월 3일 교직원 정기회의에서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4학년에게 매주 1시간씩 강의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4월 4일 오전 10시에 신입생 20명이 입학했다. 4월 7일 두 명의 한국인 수련의(최주현, 유칠석)가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11일 4학년 강의를 시작했는데, 영어 교사인 이 선생이 통역해 주었다. 치과에서 더블 컴파운드 골드 충전물을 제작해 환자 치료를 했다. 26일 의학 회의에 참석했는데, 치아 질환이 일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읽고 흥미롭게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30일 선교사들의 치과적 필요와 관련하여 선교 본부에 편지를 썼다.

5월 아내 루스에게 치아 충전을 해 주었다. 8일 선교지부 연례회의에서 샤이플리 선교사는 재정 및 의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강의는 통역이 서툴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주 충실히 준비해서 진행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더 많이 했다. 31일 치과의사 한대위(David Edward Hahn, 1874~1923)와 총독부병원 외과 소속 치과를 방문했다.

6월 2일 교수회의에서 총독부로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독촉하는 공지를 받았다. 교재로 일본어 교과서를 채택하고, 일본어로 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샤이플리 선교사는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20일 4학년 학기말시험이 있었다.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선교회 연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로 출발했다. 평양대학에서 치른 (한국어) 어학시험(구두, 필기)을 쳐서 합격했다. 제1차 의료선교사업 연차 회의에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참여해, 의료, 교육, 복음주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8월 13일경 사무실을 정리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9월 기구와 재고정리를 했다. 19일, 오후 2시에 3, 4학년 합반 강의를 했다. 12월에 일본인 언어 교사를 두었으나, 한 명은 군에 입대했다. 12일 4학년 학생들의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문제 해석을 어려워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슴고기 요리를 해 먹으며 동료들과 즐겁게 보냈다.

일자	원문	해석
1917-01-06	Missed chapel. College opened. Faculty meeting 2 P.M. Xmas flags arrived. Student expelled for going to girls room at Wonsan. Mohag. chairs came from Y.M.C.A. and bath closet mirror. Made changes for dental worker. At Barnharts for dinner and played Rook afterwards. Mr. B and Ruth beat Mrs. B and Will.	예배를 못 드렸다. 대학이 개교했다. 오후 2시에 교수 회의. 크리스마스 깃발이 도착했다. 원산의 여학생 방에 갔다가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 YMCA에서 보낸 마호가니 의자와 세면장 거울이 도착했다. 치과 근무자를 위해 변화를 주었다. 반하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루크 게임을 했다. B씨와 룻은 B씨 부인과 월을 이겼다
1917-01-12	Worked most of day. Mrs. Kerr very sick with abscess tooth required attention. Exhibition at Y.M.C.A.. Cables beat Schieffley 2 games to 1. Severance beat allies at basketball. Mills & Ludlow F. Scheifley C; Van & Daniel G; Rufus (illegible & Brockman) F; Becker & (illegible) C & G; Hitch G.	거의 하루종일 일했다. 커 부인은 복통이 심했는데, 치아를 진찰해보아야 한다. YMCA에서의 전시회. 케이블은 샤이플리를 2대 1로 이겼다. 세브란스는 농구에서 동맹팀을 이겼다. 밀스 & 러들로 F. 샤이플리 C.; 밴 & 다니엘 G.; 루퍼스 (... 브록맨) F.; 베커 & ... C. & G.; 히치 G.
1917-01-14	At Sunday School at S. Gate church. Ruth not very well so we staid home from foreign church. Started account of dental conditions in Korea. Read a few chapters of Little Dorrit.	S. 게이트 교회의 주일학교에 갔다. 루스는 몸이 좋지 않아서 외국인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한국인의 치아 상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리틀 도릿』 몇장을 읽었다.

일자	원문	해석
1917-02-26	At college A.M. At home rest of day and evening feeling very discouraged. Talked over things with Dr. Ludlow. Wrote out request to be relieved from work but decided to take different form.	오전에 대학에 있었다. 낮과 저녁 내내 매우 낙담한 채 집에 있었다. 러들로와 얘기했다. 일을 하지만 다른 형태로 하게 해달라는 해제 요청서를 작성했다.
1917-03-05	At college all day. Mr. York came from Pyeung Yeng and was at the office's most of the day. Very busy all day. Compressed air (illegible) for first time in lab. At home in evening. Arranging schedules and playing games.	종일 대학에 있었다. 요크 씨는 평양에서 왔고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 있었다. 하루종일 매우 바쁘다.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압축 공기를 사용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일정을 짜고 게임을 했다.
1917-03-28	At college A.M. Did not do much practicing. At graduation of medical college. 8 men graduated. Dr. Van Buskirk presided and used much Japanese language. At home in evening. Reception to (illegible)	오전엔 대학에 있었다. 진료를 많이 하진 않았다. 의대 졸업식 때. 남학생 8명이 졸업했다. 반버스커크 박사가 사회를 보았고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다. 저녁은 집에서 보냈다.
1917-04-04	Brought all records etc. up to date before 10 A.M. College opened at 10 A.M. 20 new freshman present. Dr. Airson gave talk Dr. Van Buskirk made the announcements. Had a good clinic and (illegible) many time. Played first tennis of the season. Prepared lecture (illegible) & read "Eben Holder."	오전 10시 이전인 새내기 학생이 입학하기 전 모든 기록 등을 최신 상태로 가져왔다. 대학은 오전 10시에 개교했다. 신입생 20명 출석. 에비슨 박사가 강연을 했다. 반버스커크 박사가 발표를 했다. 좋은 진료소에서 많은 시간을 가졌다. 시즌 첫 테니스를 쳤다. 강의를 준비하고 『Eben Holder』를 읽었다.
1917-04-07	At college A.M. Both Koreans were working on patients. At Bernards to try candy. Called Mr. Chang to fix water heater. For walk to college site. Mrs. Lucas's party. At Lucas's for dessert. Had lunch outdoors. Koons; Wells; Ludlows; Dean, Lewis; Lucas's; We	오전엔 대학에 있었다. 두 한국인 모두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베나드 집에서 사탕을 먹었다. 온수기를 고치기 위해 장 씨에게 전화했다. 대학 사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루카스 부인의 파티였다. 루카스네에서 디저트로. 야외에서 점심을 먹었다. 쿤즈, 웰즈, 러들로 가족, 딘, 루이스, 루카스와 함께했다.
1917-04-11	At college A.M. and P.M. Began lecture course to seniors. Mr. Lee the English teacher was the interpreter. Finished back fence. Played tennis very poorly. At Ludlows a while in evening.	오전과 오후 대학에 있었다. 상급생들을 위한 강의 과정을 시작했다. 영어 교사인 이 선생이 통역을 해주었다. 뒷 울타리가 마무리되었다. 테니스를 매우 못 쳤다. 저녁에 러들로의 집에 있었다.
1917-04-24	Worked very hard all day. Put in double compound gold filling. 1st tea day at union. Mrs. Miller (R.S.) served. Had some very good sets. At home addressing letters P.M. Sent out music and cards. Finished Charge it.	하루종일 아주 열심히 일했다. 더블 컴파운드 골드 충전물을 넣었다. 연합에서의 첫 번째 차 모임. 밀러 부인(R.S.)이 봉사했다. 아주 좋은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 오후엔 집에서 편지. 음악과 카드를 보냈다. 『Charge It』을 다 읽었다.
1917-04-30	Fairly busy all day. Office sent letter of inquiry to police about Mr. Rev's threat of 100 yen fine for practicing? Started letter to board relative to dental needs of missionaries. Played tennis after 5 - At house writing & reading P.M.	하루종일 꽤 바빴다. 사무실에서 레브 씨가 진료에 대해 100엔 벌금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조사 서한을 보냈다. 선교사들의 치과적 필요와 관련하여 본부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5시 이후에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 집에서 쓰고 읽기를 했다.
1917-05-05	Worked real hard A.M. Finally got a filling in Ruth's tooth. Faculty meeting at 2 P.M. Dr. Cook & Pak attended for first time. At Mills in the evening. Talking while ladies played parcheesi. Developed x ray films.	오전에 매우 열심히 일했다. 루스 치아에 충전물을 넣는 것을 최종 마무리했다. 교수회의가 오후 2시에 있었다. 쿡과 박 의사가 처음 출석했다. 밀스 집에서 저녁을 보냈다. 숙녀들과 파르체시 게임을 했다. 방사선 필름을 현상했다.
1917-05-06	Ruth started at foreign S.S. in place of Esther Beck. I restarted English Bible class. 1 hr instead of 1/2. Wrote letter home to Mrs. Allen & Mr. Severance. Did not go to church. Read a lot of Miss Minerva & William Green Hill.	루스가 에스더 벤을 대신해 외국인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나는 영어 성경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 나는 알렌과 세브란스 씨의 집에 편지를 썼다. 교회에 가지 않았다. 미네르바 씨와 윌리엄 그린 힐 씨의 글을 많이 읽어보자.
1917-05-08	Station meeting at Delaney's. Good attendance and very interesting meeting. (illegible) attempt to get (illegible) on field discussed. Koons school situation discussed. Annual elections. Torus chairman. I was elected on property & medical committees.	델라니 씨 댁에서 지부 회의가 있었다. 출석률이 높고 매우 흥미로운 회의였다. 현장에서 논의하려고 시도했다. 쿤스 학교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례 선거가 있었고. 토러스 회장이 당선되었다. 나는 재정 및 의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자	원문	해석
1917-05-31	Worked at translation work A.M. and records. No patients. Supervised clinical work. With Dr. Hahn at Government hospital. Worked late after returning. At nurses graduation at S.G. Church. 3 graduates. Lost (illegible.) Underwood called.	오전에 번역 일과 기록을 했다. 환자가 없다. 임상 업무를 감독했다. 정부 병원에서 닥터 한과 함께했다. 돌아온 후 늦게까지 일했다. 남대문교회 간호사 졸업식에서 3명이 졸업했다. 언더우드가 전화했다.
1917-06-02	Did a little radiograph work in the morning. Saw a few patients. At faculty meeting in afternoon. Rec'd advice from city hall to study Japanese. At union. At picnic supper there. At Mills afterwards.	아침에 방사선 사진 작업을 좀 하고 환자도 몇 명 보았다. 오후에 교수 회의를 했다.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총독부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연합에 갔다. 소풍 가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 후엔 밀스와 함께 했다.
1917-06-20	Studied most of the day in prep for language exams. Had a term exam for senior class. Dr. Ross helped a little but with the exam preparation. At home in the evening.	어학 시험 준비로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했다. 4학년 학기말 시험이 있었다. 닥터 로스가 조금이지만 시험 준비는 도와주셨다. 저녁에는 집에 있었다.
1917-06-22	Left for Pyongyang at 9:20 for annual meeting. Ruth fainted at station & I took her home. She got much better. Train very crowded. Rec'd (illegible) exam paper from Lee. At Swallen's the guest house. Swallen's 25th anniversary.	연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9시 20분에 평양으로 떠났다. 루스가 역에서 실신해서,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많이 회복되었다. 열차는 매우 혼잡했다. 이 쌩로부터 시험지를 받았다. 스왈른 25주년을 기념하여 스왈른 게스트 하우스에서.
1917-06-24	Annual meeting opened with Lord's supper lead by H.C. Blair. Baptism of 4 children. Afternoon service with methodists, Bishop Welch preached a very good sermon. Wrote letter #2 to Ruth.	H.C. 블레이어의 주도로 연례 회의가 열렸다. 블레이어, 네 아이의 세례식. 감리교 신자들과의 오후 예배에서 웰치 주교는 매우 훌륭한 설교를 했다. 루스에게 2번 편지를 썼다.
1917-08-13	Started to arrange the office so as to be able to work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917-09-19	At college A.M. Lecture to combined 3rd & 4th class at 2 P.M. At 1st meeting of language class. At Mr. Smith's. 9 present. Played crochet in afternoon. At home in the evening.	오전에 대학에 있었다. 오후 2시에 3, 4학년 합반 강의를 했다. 어학 수업의 첫 번째 모임을 했다. 스미스 씨 집에 갔다. 9명이 왔다. 오후에 크로체를 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보냈다.
1917-12-01	At college A.M. Faculty meeting. Asked S.M. people to send Dr. Stites to Tokyo for one year. Also asked all to teach in Japanese who can. Gunabi party with dessert at our house for my birthday. Mills, Luds & Lucas's.	오전은 대학에서 보냈다. 교수 회의를 했다. S.M. 사람들에게 스타잇 박사를 1년 동안 도쿄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어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내 생일에 우리 집에서 디저트와 함께 구역 모임 파티를 했다. 밀스와 러들로와 루카스가 함께 했다.
1917-12-04	Began language study with Mr. Nariba at 7:30 A.M. Studied until 10:40. At college after that. At Y.M.C.A. for volley & basketball. At home in the evening.	오전 7시 30분에 나리바 씨와 어학 공부를 시작했고, 10시 40분까지 공부했다. 그 후엔 대학에 있었다. YMCA에서 배구랑 농구를 했다. 저녁에는 집에 있었다.
1917-12-06	Mr. Nariba brought Mr. Katori as my teacher. Usual schedule at the college. Took Ludlow's place at the Japanese Methodist Church. Miss Stevens at our house for evening meal.	나리바 씨와 카토리 씨를 나의 선생님으로 모셨다. 대학에서의 평범한 일정. 일본 감리교회에서 루들로의 자리를 대신했다. 스티븐스 양이 저녁 식사하러 우리 집에 왔다.
1917-12-12	Usual schedule except P.M. Had first exam for 4th class. Much trouble by poor translation of questions. Missed lang. class because of exams. Shopping with Ruth in eve.	오후를 제외하고 평소의 일정이었다. 4학년 학급을 위한 첫 번째 시험을 쳤다. 질문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 때문에 어학 수업을 놓쳤다. 밤엔 루스와 쇼핑을 했다.

### 3. 1918년

샤이플리 선교사는 학교 학생들을 학사 지도하는 일과 치과 치료 및 지역 치과 상태를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일을 하였다(worked)는 표현이 147회로 가장 많이 적혀 있었다. 치과 진료로는 외국인 발치를 주로 하였으며 X-ray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법랑질 치아 시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일본인 치과의사 미시나와 같이 진료하며, 사무실의 서류 작업, 보고서 작업 및 각종 수리도 하였다.

샤이플리 선교사가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음과 학생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월에는

대학 상급반 진학 및 진급 누락에 관한 기록이 있다. 4월 2일에는 한국인 치과 졸업생을 소개받았다. 5월에는 발치 과정에서 마취제로 노보카인을 사용했지만 잘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1월엔 G. V. 블랙의 치과 병리학 책을 읽었다. 일을 돌던 미시나 선생의 아버지가 연말에 사망하여 귀국하고, 진료 업무로 계속 바쁘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갓 태어난 윌리엄 주니어(빌리)와 부인인 루스와 함께하면서,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 많은 책을 읽었다. 아기의 체중 기록 및 몸이 아파했던 일과 루스가 아기 보며 아파했던 기록이나 본인의 질병도 간혹 나왔다. 11월 30일 생일에는 부인과 아들에게 선물로 카메라를 받았다.

일요일에는 외국인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각 교파의 연합 예배에서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하였다.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연례 모임이 있어 평양을 방문하여 다수의 분과 회의에 참석하였다. 많은 외국인 동료들과 모임을 가질 땐 회의 또는,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지냈다. 여러 외국인 선교사, 의사 및 가족의 일들이 적혀 있다. YMCA에서 1918년 농구, 배구, 야구, 탁구 등의 스포츠를 하였으며, 4월부터는 주로 테니스를 했다.

일자	원문	해석
1918-01-26	W.J.Jr arrived at 6:22 a.m. Sent a cablegram home. Sent telegram to nurse. At hospital most all day. Slept in ?? room.	윌리엄 주니어가 오전 6시 22분에 태어났다. 집에 해저 전신을 보냈다. 간호사에게 전보를 쳤다.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 있었다. … 잤다.
1918-02-02	Father's Birthday. Finished repair of X-Ray machine. Short faculty meeting. Assigned charge of X-Ray. At ymca	아버지 생신. 방사선 기계 수리를 완료했다. 짧은 교직원 회의. 방사선 기계 비용을 할당했다. YMCA에 갔다.
1918-02-22	Worked at college most all day. Started Vulcarror?? at 6:30 am. Worked until 7. Corner of cooling part of x-ray tube broke. Missed language class and music club.	하루종일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일했다. 오전 6시 30분에 … 시작했다. 7시까지 일했다. X선 튜브의 냉각부 모서리가 부러졌다. 어학 수업과 음악 모임을 놓쳤다.
1918-02-25	Studied with Mr. Katori and Prof. Oshinea?? Tried Smith's certified enamel and it worked fine. (Miss Shields) at Ludlows a while before supper. At home in the evening.	카토리 씨와 오시나 교수님과 함께 공부했다. 스미스의 인증된 법랑질을 시험해 보았는데 상태는 괜찮았다. 저녁 식사 전에는 잠시 동안 러들로 집에 있었다. 저녁에는 집에 있었다.
1918-03-21	Faculty meeting 9 a.m. Entire senior class passed. Good average. Dropped 2 freshman from the roll entirely. Worked on stock book. Read part of Whitlock's story of Belgium. Discharged for continual lateness.	오전 9시 교직원 회의. 상급반 전체가 합격했다. 좋은 평균. 1학년 2명을 진급 노락시켰다. 재고 장부에 일했다. 휘트록의 벨기에 이야기 일부를 읽었다.
1918-04-02	Had another good clinic day. Dr. Shanocks brought a letter from a Korean dental grad. Board of managers mad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work. At meeting at Vans p.m.	오늘도 진료실이 잘 굴러갔다. 쇼노스 박사가 한국인 치과 졸업생의 편지를 가져왔다. 이사진이 일에 관한 권고를 제시했다. 반스에서 오후에 회의가 있었다.
1918-05-24	At Bookman meeting at Pierson memorial at 3 p.m. Tried to have tooth pulled but novocain did not take effect.	오후 3시에 피어슨 기념관에서 북맨 회의가 있었다. 발치하려 했지만 노보카인은 효과가 없었다.
1918-06-22	Went to Pyongyang 9:50 a.m. Usual day. Shopping in the afternoon.	오전 9시 50분에 평양에 갔다. 평소와 같은 날. 오후에 쇼핑했다.
1918-06-26	Business session a.m. Committee meeting in afternoon. Dr. Mac Donald came to meeting in eve. Dinner at Miss Reiners.	오전에 비즈니스 세션, 오후에 위원회 회의. 닉터 맥도널드가 저녁에 회의에 왔다. 라이너스 양 집에서 저녁 식사.
1918-07-04	Sessions morning, afternoon & night. Adjourned 10:15 p.m. Mr. Coeu assigned to Seoul. Celebration at Miss Beats. Returned to Seoul on 1:28 a.m. train.	아침, 오후, 밤 세션이 있었다. 오후 10시 15분 휴정. 코우 씨는 서울로 발령되었다. 비즈 양 집에서 축하 파티. 기차를 타고 오전 1시 28분 서울로 돌아왔다.

일자	원문	해석
1918-11-22	Worked all day. At reception at Avison's for Rhodes, Owens, C? & Miss. Hartness. Wrote to Mills & Ludlow. Read some of G. V. Blacks special dental pathology.	하루종일 일했다. 로즈, 오웬스, …, 하트니스 양의 환영회를 에비슨 댁에서 열었다. 밀스와 러들로에게 편지를 썼다. G. V. 블랙의 치과 병리학을 읽었다.
1918-12-14	Dr. Mishina's father died & he went to Tokyo in eve. Red Cross lecture by Major Castle but I went to gymnasium. H. Miller, Jack, Hill & I were there.	미시나 박사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미시나는 저녁에 도쿄로 갔다. 캐슬 소령의 적십자 강의가 있었지만 나는 체육관에 갔다. H. 밀러, 잭, 힐, 내가 함께했다.

#### 4. 1919년

샤이플리 선교사는 1919년에도 환자 진료, 학생 지도 및 관리, 사무실의 다양한 업무들(서류 작업, 재고품 파악, 기공실 및 실습실 수리) 등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외국인 예배 및 여러 회의(교수진 회의, 지부 회의, 의료 회의, 연례 회의, 적십자 서울 지부 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또한 언어 학습, 논문 읽기, 책의 집필에도 열심히 임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현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보인다. 특히, 세브란스의 학교 졸업생을 받아 치의학을 교육하였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2월 6일).

발치, 브리지, 아말감, 크라운, 와동 형성, 턱관절, 소아 치료, 인레이 등과 같은 영역을 진료하고 다른 의사나 학생의 진료를 돋기도 했다. 한편 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도 있었다. 3월 28일에는 처음으로 턱관절 환자가 내원하였다. 7월 2일에는 한국인 소녀를 진료했고, 7월 30일에는 한 소녀가 밤에 수술을 받다가 새벽에 죽었다.

퇴근 후와 주말(휴일)에 샤이플리 선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휴식을 취했다. 농구, 배구, 야구, 수영, 테니스 등과 같은 스포츠를 즐겼고, 다양한 게임(루크, 피노클, 파르체시, 체커) 및 독서(소설, 치과 잡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동료들과 많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동네와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그림 2). 여름에는 강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가를 즐겼다. 흥미롭게도 <거룩한 성>의 리허설 및 합창단 연습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그림 2. 샤이플리 선교사 가정과 다른 외국인 가정들이 한강변에서 가진 모임(복원 결과물)

사이플리 선교사는 한국의 문화 및 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 고종의 서거 날인 1월 23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 애도를 표했으며, 1월 27일에는 조문객들을 보기 위해 궁을 방문했다. 또한 2월 14일에는 명성황후의 합장 행렬을 보고 오 박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6월 21일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출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기록하였다. 추가적으로는 몇몇 한국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9월 2일 강우규의 의거<sup>2)</sup>에 관한 언급도 있다.

일자	원문	해석
1919-01-23	Worked all day although a holiday was declared because of Korean Emperor's death. Flags ordered at half mast with crepe at top.	대한제국 황제의 서거로 휴일이 선언되었지만 하루 종일 일했다. 깃발 맨 위에 축면사를 달아 조기를 게양했다.
1919-01-27	To see the mourners at Grand Prince Jr's palace gate. At home reading in the evening.	조문객들을 보기 위해 순종의 궁 정문에 갔다.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었다.
1919-02-06	Worked all a.m. Met with board of managers in the afternoon. Ora said "They could not make any plans that would satisfy me." I told him that could be reworded. More B.S. and no practical results.	오전 내내 일했다. 오후에 이사회 임원진을 만났다. 오라가 "그들은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 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좀 업생들을 더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
1919-02-14	At work until noon. Took pictures for classbook. To see Queen Minn's funeral rehearsals. Part 1 - given alive riding in chair with attendants. Part 2 - Queen's mourners. Part 3 - Small empty bier. Part 4 - large bier with corpse. Dr. Oh explained procession to us.	정오까지 병원에 있었다. 수업 교과서용 사진을 찍었다. 명성황후의 장례식 리허설을 보았다. 1부 - 수행원과 함께 의사에 산 채로 타고 있다. 2부 - 여왕의 조문객. 3부 - 작고 텅 빈 상여. 4부 - 시체가 있는 큰 상여. 오 박사님은 장례 행렬을 설명해 주었다.
1919-02-22	Worked until 3:30 pm Mr. Ludlow took chloroform to extract 2 teeth. Went to bed early. Miss Hartness at our house until 10:30 pm	오후 3시 30분까지 일했다. 러들로 씨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치아 2개를 발치했다. 일찍 잤다. 하트니스 양은 밤 10시 30분까지 우리 집에 있었다.
1919-03-01	Faculty meeting at Hirsts. Koreans sent declaration to Government and had big demonstration on streets. At ymca playing volleyball and basketball.	허스트 댁에서 교수진 회의가 있었다. 한국인들은 정부에 선언문을 보내고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 YMCA에서 배구와 농구를 했다.
1919-03-05	Worked from 9:30 Another demonstration by Koreans. One started from SG. station. Some of nurses arrested by released later. Had great luck in basketball.	아침 9시 30분부터 일했다. 한국인들은 또 다른 시위를 시작했다. 하나는 남대문역에서 시작했다. 몇몇 간호사들은 나중에 풀려났다. 농구 경기에서 큰 행운이 있었다.
1919-03-12	An attempt to give a demonstration was frustrated by authorities. At rehearsal of Holy City at Smiths. Large foreign mail arrived. At home in the eve. Billy walked around chairs.	시위를 하려는 시도는 당국에 의해 실패했다. 스미스 댁에서 거룩한 성을 리허설을 했다. 대량의 외국 우편물이 도착했다. 저녁에는 집에 있었다. 빌리는 의사 주변을 걸어 다녔다.
1919-03-17	College building searched by police. All on confined kept until the search was completed. All my personal and business correspondence gone over. Balanced stock invoice 1918-1919	경찰이 대학 건물을 수색했다. 수색이 끝날 때까지 모두 감금되어 있었다. 개인적 및 사업상의 서신들이 모두 없어졌다. 1918~1919년도 재고품 송장을 처리했다.
1919-03-27	Completed books. At office for 1918-1919. Mrs. Crane and children, Nisbets, Mrs. Knox and girl, Mr. Bill arrived on night train.	책 집필을 완성했다. 1918~1919년 업무 때문에 사무실에 있었다. 크레인 부인과 아이들, 닉스비츠, 녹스 부인과 딸, 빌 씨는 야간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1919-03-28	At choir rehearsal at Smith's. Only a few there. First jaw case came into the hospital while I was at the consulate. Mrs. Bill and Mr. Crane were taken to Kwangju.	스미스 댁에서 합창 연습을 했다. 몇 명만 참석했다. 내가 영사관에 간 사이에 처음으로 턱관절 환자가 내원했다. 빌 부인과 크레인 씨의 유해는 광주로 옮겨졌다.
1919-06-21	At Mrs. H.B. Underwood's birthday party at river. Miss Appenzeller (Mary & Alice) Ludlows; Mrs. Kerr; Mr. French; Lucas's and we. It rained & the Seoul crown had a hard trip home.	강가에서 언더우드 부인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아펜젤러 양 (메리 & 앤리스), 러들로 가족, 커 부인, 프렌치 씨, 루카스 내외, 루스와 함께 했다. 비가 왔고 서울의 정부는 어렵게 자리를 잡았다.

2) 강우규는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기 위해 1919년 9월 2일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이듬해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일자	원문	해석
1919-07-02	Attended mission meeting all day & eve. At hospital to operate on Korean girl. Dr. Chang & other Korean helped & Bessie Kim. Left for Seoul on night train. Underwood, (illegible), (illegible) & Miss Esteb.	하루 종일 및 저녁 전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여자아이를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서 있었다. 장 박사와 다른 한국인들이 도움을 주었다. 야간열차로 서울로 떠났다.
1919-07-30	A holiday. Went to office as I did not know about holiday. Returned on 11:50 train. Read in afternoon. Went bathing on our side of the river. H.E. Blans girl operated on at night & died. 1:25 a.m.	휴일이다. 휴일을 몰라서 출근했다. 11시 50분 기차로 돌아왔다. 오후에 독서했다. 강변으로 수영하러 갔다. H. E. 블랜스 씨 딸이 밤에 수술받다가 새벽 1시 25분에 죽었다.
1919-09-02	Did some dental work. Had a little more baseball. Played tennis. Gov. General & party reached Seoul, someone threw a bomb at the carriage.	치과 진료를 했다. 야구도 좀 더 했다. 테니스를 쳤다. 총독과 당이 서울에 도착했고, 누군가가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1919-10-08	Worked until late. Had a conference in the morning about my furlough & decided on Nov. 1 - to get to Gaideu City Conf. 2 - to get our work better provided for. 3 - Better for my studies.	늦게까지 일했다. 오전에 나의 휴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11월에 결정이 난다. 1) 가이드 시 콘퍼런스 참석할 것, 2) 우리 일에 관한 물자 제공을 확충할 것, 3) 나의 연구에 매진할 것
1919-11-21	At work until 5:30. Took Billy for a little walk. At special faculty meeting 8 p.m. At Avison's to discuss 1 - petition of freshman to refuse Dr. Pang as anatomy teacher. 2 - (illegible) of whole student body for immediate Prof of several subjects & (illegible) equip.	5시 30분까지 일했다. 빌리와 잠깐 산책을 했다. 오후 8시에 특별 교수진 회의에 참석했다. 에비슨 댁에서 다음의 사항을 논의했다. 1) 해부학 교수로 팡 박사를 거부하는 1학년 학생들의 청원, 2) 여러 과목의 교수와 … 장비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청원

## IV. 토의

샤이플리 선교사의 일기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샤이플리 선교사는 많은 시간을 치과 진료에 할애하였으며, 이것은 세브란스병원 이사회에 요청이기도 했다. 둘째, 이런 방침에 대해 샤이플리 선교사 본인은 문제의식과 좌절감을 경험했으며, 그는 사역 방식의 변경을 요청했다. 셋째, 그럼에도 샤이플리 선교사는 학생 교육에 많이 관여하였다. 넷째,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은 초기부터 블랙의 수복학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등 독일-일본 계열의 치의학이 아닌 미국 치의학을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다섯째, 일본어로 교육할 것을 강요한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샤이플리 선교사는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였으며, 이는 업무 활동과 교육을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샤이플리 선교사가 의과대학생 및 졸업자에게 치의학을 교육하였음을 확인하고,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이 비록 정식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1915년부터 지속하여 치의학 교육을 시행한 장소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샤이플리 선교사는 중국 광동 지역에 설립된 크리스천칼리지 치과부(Dental Department, Christian College)에서 일한 윌리엄 거텔리어스(William H. Gutelius Jr., 1880~?) 선교사가 현지인을 위한 치의학 교육을 시행한 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Gutelius, 1916), 그 또한 사역지에서 현지 의료인을 길러낼 수 있기를 소망했다(권호근, 2012년 4월). 이런 샤이플리 선교사의 노력은 이후 사역한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치의학의 초기를 뒷받침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수련 교육으로 이어졌다(김준혁, 2023년 9월).

물론, 한국 최초의 치과대학은 1922년 일본이 설립하고 운영한 경성치과의학교(1929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가 맞다. 그러나, 경성치과의학교의 빠른 설립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세브란스병원의 치과의학전문학교 설립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치과의사학교수협의회, 2021). 만약 샤이플리 선교사의 노력이 성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관한 상상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중국에서의 발전 방향을 참고하여 그 경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1907년 린제이 선교사(Ashley W. Lindsay, 1884~1968)가 사천에 개업한 런지 치과(Renji Dental Clinic)는 1912년 확장하여 중국 최초의 치과병원이 되었다.<sup>3)</sup> 1914년 의료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중국연합대학교(West China Union University)가 설립되었고, 3년 뒤인 1917년 런지 치과병원과 린제이 선교사가 서중국연합대학교에 치과학교실을 개설하면서 중국 최초의 근대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Wang et al., 2008). 샤이플리 선교사 또한 같은 결실을 조선에서 충분히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샤이플리 선교사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그의 손으로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이 설립되었으며, 해당 교실은 명확히 현지 치과의사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세브란스 이사회의 몫이해로 치과의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다고 해도,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에서 한국 최초의 치의학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을 통해 미국 치의학이 한국에 전파되었다. 미국 치의학은 수련 방침, 전신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학문적 접근, 별도의 치기공사를 두는 것(그림 3) 등에서 독일-일본 계통의 치의학과 차이를 보였으며(이주연, 1999) 전후 미국식 수련 교육 모형이 외과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짐에 따라(Camilson et al., 2022) 미국 치의학은 주도적인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의 치의학 모형과 미국 치의학의 친연성을 생각해 볼 때, 샤이플리 선교사와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림 3. 세브란스병원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한 기공사 이 씨와 고 씨(복원 결과물)

3) China Daily (2014년 6월 4일). Oral health museum shines light on medical history. <[https://www.chinadaily.com.cn/regional/2014-06/04/content\\_17562510.htm](https://www.chinadaily.com.cn/regional/2014-06/04/content_17562510.htm)>

## V. 결론

샤이플리 선교사는 1915년 치과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치과부와 대학 치과학교실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및 한국인의 치과 진료와 수련을 받고자 하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치의학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엄혹한 시절 선구자로서 그가 감당한 뜻은 엄청나다. 그러나, 그가 치과의사로서 특출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다. 샤이플리 선교사는 많은 이들을 진료하였지만, 그 혼자서 진료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진료를 하거나 대단한 진료상의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으며, 치의학 교육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했다. 그를 다른 의료 및 치과의료 선교사와 달리 주목할 이유는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샤이플리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당장의 의과적·치과적 필요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현지의 인력을 길러내, 그 인력이 현지의 독특한 필요와 요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조선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인 치과의사를 교육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하였다.

그가 있던 시기에 그 노력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가 샤이플리 선교사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가 속했던 여러 위원회가 샤이플리 선교사에게 교육보다는 진료에 집중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의 노력이 격하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샤이플리 선교사가 한국에 근대 치의학 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비록 제한적이나마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일기를 통해 샤이플리 선교사의 사역이 한국 최초의 치의학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졌음을 공표하고자 한다.

## VI. 참고문헌

1. Camison, Liliana, Brooker, Jack E., Naran, Sanjay, et al. (2022). The history of surg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Annals of Surgery Open. Vol. 3, No. 1. p. e148.
2. Gutelius, Will, B. (1916). History of the Gutelius Family. Bluffton.
3. Wang, Ying, Ni, Longxing, Lin Yuan, et al.(2008). A brief introduction to stomatological education in the Chinese Army.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Vol. 58. pp. 279-282.
4. 권호근(2012년 4월). 윌리엄 제이 쉐플리 관련 자료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고서.
5. 김준혁, 김수연, 신유석, 이주연(2021). 연세치의학의 연원과 윌리엄 샤이플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6. 김준혁(2023년 9월). 연세치의학 역사 재조명: 1915~45년 한국인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고서.
7. 연세대학교 치과대학(2015). 연세치의학 100년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8. 이주연(1999).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 -기독교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37권 제11호. 876-877쪽.
9. 치과의사학교수협의회(2021). 한국 치과의 역사. 역사공간.

## Abstract

### William Scheifley Diary

Junhewk Kim, Sooyeon Kim, Yooseok Shin, Jue Yeon Lee

**Background** William J. Scheifley, who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e Dental Department at Severance Hospital in 1915 and started the first dental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kept a diary throughout his ministry. As these documents have recently been translated and introdu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iterature.

**Methods** Since the diaries for 1916 and 1920 were lost, the diaries for 1915, 1917, and 1919 were transcribed and reviewed.

**Results** The diary record confirm that Dr. Scheifley endeavored to provide dental education despite various obstacles during his ministry, and demonstrate that his mini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ntal Department at Severance Hospital led to the first dental education program in South Korea.

**Discussion** Dr. Scheifley's ministry was aimed at training local dentists. Although his efforts were thwarted, the Dental Department at Severance Hospital continued to practice and was firmly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for training Korean dentists. The literature confirms Scheifley's efforts a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subsequent path.

**Keywords** William Scheifley, Severance Hospital Dental Department, 1915, dental education

#### 〈교신저자〉

- 김준혁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조교수
- Tel : 02-2228-3022, E-mail : MOLE0619@yuhs.ac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4 장 기구 및 선거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기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을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sup>3,9-13)</sup>.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sup>2</sup>는, 김 등<sup>2</sup>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 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권 훈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문	김정균	편집이사	송영하	이사	임용준
고문	박승오	정보통신이사	이동운	이사	김명기
고문	신재의	정책이사	안진수	이사	이준규
고문	변영남	섭외이사	김성훈	이사	조영식
고문	김평일	연구이사	강경리	이사	박영준
고문	배광식	후생이사	조현재	이사	박덕영
고문	조영수	법제이사	진보형	교수협	박병건
명예회장	김희진	자문위원	김종열		
회장	이해준	자문위원	차혜영	대학이사	강신의
부회장	이주연	자문위원	허정규	대학이사	박호원
부회장	권훈	자문위원	홍예표	대학이사	이재목
부회장	김준혁	자문위원	백대일	대학이사	박찬진
총무이사	김현종	자문위원	김병옥	대학이사	이홍수
재무이사	신지연			대학이사	김성태
대외이사	유승훈	감사	박준봉	대학이사	박용덕
교육이사	유미현	감사	류인철	대학이사	김지환
학술이사	한승희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2년 제41권 제1호 통권 46호

Vol. 41, No. 1, 2022

발행인 : 이해준

Publisher : Lee, Hae Joon

편집이사 : 권훈

Editor-in-Chief : Kweon, Hoon

인쇄일 : 2022년 12월 23일

Printig date : December 23, 2022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22

발행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083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2

2, Gurodong-ro 17-gil, Guro-gu, Seoul 08316

세브란스치과의원

Severance Dental Clinic

전화) 02-854-0028, 팩스) 02-854-0027

Tel : +82-2-854-0028, Fax : +82-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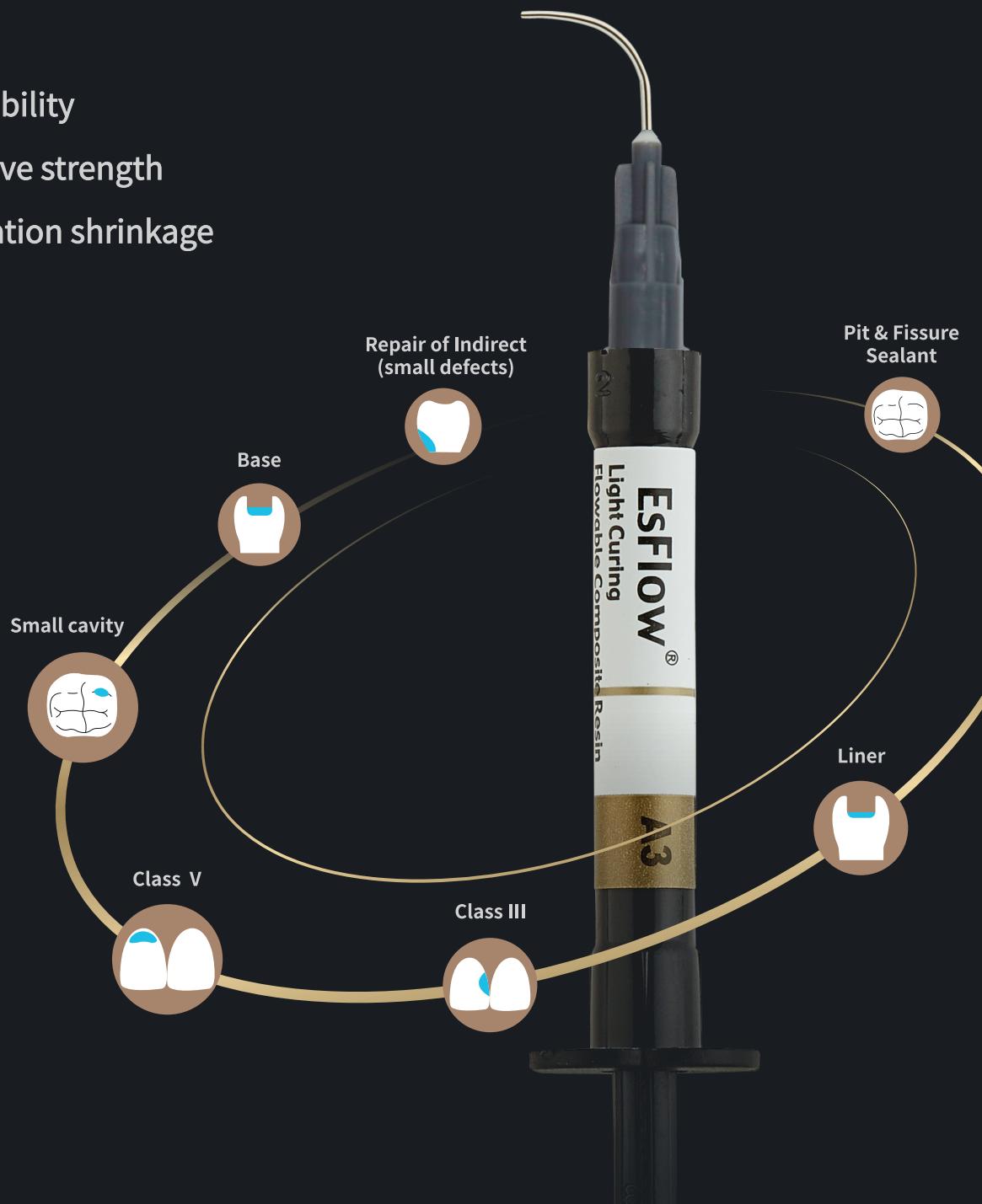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

# Light-cured Flowable Composite Resin

## EsFlow®



- Highly esthetic
- Excellent Flowability
- High compressive strength
- Low polymerization shrinkage



(주)스피덴트      국내영업 사무소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고잔동,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1015호)  
Tel. 1644-3412 Fax. 02-318-0034 E-mail. spident01@naver.com

물류센터 : 21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84 (고잔동, 한국산단 117호)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41권 제1호 통권 46호 2022년

## ■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발전 역사와 연구 동향

- 안진수, 김지형

##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프랑스

- 권 훈

## ■ 윌리엄 샤이플리의 치과 의료 사역과 『샤이플리 다이어리』

- 김준혁, 김수연, 신유석, 이주연